朝鮮日報 夕刊 十日(木) 本紙朝夕刊二十面

中南部中國一帶에 排日的風潮高揚

滿洲事變當時와가튼形勢! 陸軍中央部事態重視

【東京電話同盟】成都事件勃發後 旬日이지나지못하야 北海暴虐事件을 惹起하는等 中國에잇서排日테로行動이 頻發하고 抗日風潮가高揚되는것은 特히 滿洲事變勃發直前의 張政權에잇든 滿洲의 物情騷然하든 當時를 彷彿케하는데 陸軍中央部는 極히 事件을 重大視하고 推移를 嚴戒하고잇다

即 磯谷軍務局長은 九日午後 海軍省에 豊田軍務局長을 訪問하고 北海事件에 對한 海軍當局의 對處方針 中中、南中에잇는 居留民을 惡化케한 排日風潮渦中에 잇는 居留民을 保護할 根本對策等을 聽取하고 海軍側의 强硬決意를 絶對支持하고 陸海協力하야 居留民保護 旣得權益의 保護에 萬遺憾업기로 되엇다 그리고 成都事件善後措置에 對하여는 陸海外各當局은 一致된 方針에 基하야 南京政府의 責任을 糾彈하기爲하야 川越大使의 交涉成果에 多大한 期待를 가지고 잇는데 中國側이 不誠意를 反復하야 日本側의 要求에 不應할 境遇에는 重大決意下에 自主的으로 居留民의 生命財産의 擁護 權益의 保護에 任하기爲하야 待機中인데 十日 右에 關하야 陸軍當局談의 形式下에 重大聲明을 發하야 所信을 中外에 闡明할터이다

戶根木書記生北海에

【廣東九日發同盟】北海事件에對하야 眞相調査次로 現地에急行하는 廣東總領事館 戶根木書記生一行은 九日午後十時 廣東發 香港에 向하야同地에서 日本軍艦 嵯峨에 便乘하고 十日 北海로 向하엿다 그리고 中國側은 陵士芬을 主班으로 外交人員二名 公安局員若干名으로 構成된 調査隊를組織하야 中國軍艦 [illegible]安으로 九日午後 廣東發 北海에 向케하엿다

皇太子殿下

那須서御一夏御安過

【那須電話同盟】御兩親陛下의御膝下로부터 爽凉한 高原那須御用邸에서 여름을 지나시압신皇太子殿下께서는 十日、御弟宮義宮殿下御姉君順宮殿下와 御同伴 葉山御用邸에 行次하시와 御滯在中이압신 御兩親陛下께 實로四十五日만에 御對面하압시리라고承聞되는바 御出發前日九日 大金事務官을 通하야 皇太子殿下의御近情을 奉伺컨대 殿下께서는 御滯在中 益益御壯健하시와 御體重도 十四키로를 넘으시사 御發育이 매우조호시다고承聞되다 御日常은 至極히 御規則的이시어서 朝六時에는 御起床、御姉宮과함께 라듸오體操를 하압시고 午前 八時부터 御內庭에서 御活潑히 御運動을 하압시는데 御姉宮順宮殿下께서 十時까지는 御勉學하압심으로 皇太子殿下께서는 홀로 놀으시다가 十時부터는 御姉宮殿下와 함께 情답게 놀으시는데 唱歌도 잘하압시고 戶外의 御運動을 질겨하시와 御顔도 검으시도록되시엇고 御食事에도 御好惜이 업스시다고 承聞되다 午後에는 室內遊戲를 하압시는데 間食도잡수시는일이 잇다 御弟 義宮殿下를 사랑하압시는 御態度는 御側近奉仕者가 모다 御感激하는 바이다 또 殿下께서는 親히 잡어가지시고 놀으시는 昆虫이 衰해지면 곳노아주시고 牛乳를 질겨하심으로 間或 牛舍에 이르시와 親히 소에게 풀을 주시는等 御仁慈하신 御性質은 御日常의 御行動에도 拜察되다 또 무슨事物이든지 보시는대로 銳敏한 御下問이 게시와 側近者도 御答에 困難한때가 種種잇서서 天資가 如何히 御英邁하압심을 拜察하옵기에도 惶悚하다 御日常의 御擧措도 御四歲라고는 빋압기어려울만큼하며 先日에도 御宮相에게 賜謁하압시고 嚴肅히 禮를바드압신 御崇嚴한 御態度에는 側近一同도 自然襟을正히하얏다고 承聞되다 九日夜에는 오래만에 御兩親陛下께 御對面을 明日에두시고 御機嫌이 더욱조호시와 御定刻인 午後八時半에 御就床하압시엇다고 承聞되다

兩廣外交特派員에 正式抗議를提出

吉村廣東總領事代理、中國側責任回避詰難

北海事件에對하야

【廣東九日發同盟】吉竹總領事代理는 外務省의訓令에基하야 北海事件에關하야 九日午後三時 兩廣外交特派員刁作謙氏에게 公文으로正式抗議書를 提出하엿다 右抗議內容은 今回의北海事件이 十九路軍의 抗日테로結果에서惹起된것으로 事件의性質은 成都事件과大略其軌道가同一하다 中國側은 本事件에對하야 最善의方策을 取하기를 希望하고 다시現場의保存에對하여도 中國側의應急措置로 日本側의現地調査遂行에 遺憾업시할것과 또被害者及 注意를 促하고 中國의 本事件에對한 責任은 어데까지 中央側에 잇다는것을 指摘하야 日本政府는 國民政府의 責任을 追及하는權利를 留保한다는 旨를述하엿다

【廣東九日發同盟】北海事件의 現地調査次로 日本側이 現地調査員을 派遣하엿다는 報道를 接한 中國側은 極度로 唐慌하야 兩廣外交特派員刁作謙氏는 九日夕 吉竹總領事에 對하야 口頭及公文으로 日本側은 現地調査員派遣을 中止하기를 懇請하엿다 그리고 「北海地方一帶에는 十九路軍이 蟠居하여잇고 中央의威令이밋지못함으로 日本側의調査員이 同地方에 上陸하는것은危險한바 그러한境遇의 不祥事件에對하여는 中國側에서 責任을 지기는 不可能하다」는 旨를 述하야왓슴으로 吉竹總領事代理는 이를反駁하야 「中國側은 十九路軍을 中央軍으로 認定하지 안는가 萬若 同軍에 이러한 不逞行爲의 危險이잇다고하면 事前에適當한措置를講究함이 必要하다 中國側의內政問題는 日本이 關知할바가아니다」라고 中國側의責任回避를 叱咤하엿다

【南京九日發同盟】須磨總領事는 九日午後五時 外交部에 陳次長을 訪問하고 北海事件에對하야 抗議를 提出하는同時에 質問한바잇섯는데 陳次長은 아직何等報告를 接치못하엿다하야 明答을避하엿다 따라 須磨總領事는 廣東으로부터 現地調査次로 北海에向하는 戶根木書記生一行의保護及調査上便宜供與를 要求하고 直時其旨를 廣東政府當局에 通報하기를 確約하엿다

北海事件에對하야 廣東省政府도調査

【上海九日發同盟】中國側情報에 依하면 北海事件에 關하야廣東省政府는 손쌀리 調査員을派遣하야 一行은 이미 北海에到着하엿다 外交部는 다시兩廣外交特派員刁作謙氏에게 現地에急行하야 事件調査를 行하라는 命令을 發하엿다

蔣氏代表를派遣 李、白兩氏와協議

【廣東九日發同盟】蔣介石氏는北海事件을 惹起한 十九路軍의占[illegible] 領地에 [illegible] 李、白及 [illegible] 介石氏는 十日中에 [illegible] 兩氏를 [illegible] 飛行機로 南寧에派遣하야 李、白兩氏와 [illegible] 十九路軍의處分에對하야 [illegible] 할터이다

各道知事會議

二十四、五兩日招集

[illegible] 大野政務總監[illegible] 各道知事會議는 드듸어 來廿四 廿五 兩日에 互하야 總督府第一會議室에 招集키로決定 十日 各道知事에게 通牒을 發하얏다 會議 第一日째에 南總督으로부터 施政方針에 關한 訓示가잇고 다음 大野政務總監의 訓示가잇슨後 各道知事가 管內狀況報告를하야 第二日도 續行할 豫定이다 新總督의 大方針으로 指目되든 [illegible] 明年度에 새活計劃을樹立하고 그 [illegible] 計上要求한데對하야 財務局査定에잇서서 一萬五千圓의大削減을當하야 新總督、總監의 意圖는 今後[illegible]에 어떠한經止點을 要求하고잇는것 가리보이든此際 字垣前總督時代 北亦[illegible]의重大事項으로 知事會議에까지 [illegible]하야 [illegible]그實現을[illegible]하고잇든 社會事業調査會設立計劃은 學務局의立案을得하야 明年度豫算에 그所要經費를 計上要求하고잇든바 全經費가全部削除를當하야 總督、總監의社會事業에對한 新抱負가 다시朝鮮實情에對하야 再檢討를 行하라는 意圖에 基한것으로 學務局에서도 이復活要求를 하지안코 昨年의事業을 [illegible]繼續하여오든 所謂「今後의 發展에 [illegible] 社會事業施設의 擴充策」은 一時流産되는形式이 되여 新總監의 社會事業에 對한 經綸은如何한方向에 邁進하려는지 [illegible] 注目된다

社會事業調查費 全部削除

新總督의經綸注目

三橋新警務局長

十六日京城到着

【東京電話同盟】新任朝鮮總督府警務局長 三橋孝一郞氏는 十日午前九時 東京驛發 特急 富士로 赴任의 길을 떠낫다 途中 伊勢神宮 畝傍 桃山 兩御陵에 參拜하고 十六日 京城에 到着할 豫定이다

共産主義를痛罵 植民地返還要求

나치스黨은奇蹟遂行에成功

黨大會에서 히總統演說

【뉘른베르크九日發同盟】第八回나치스黨大會는 九日午前十一時 當地에서 全國으로부터 모힌八十萬의 黨員出席下에 開催되엿다 劈頭에 副總理헷스氏開會를 宣하고 다음에 演說을 行하야 [illegible] 告는 지금 西班牙動亂으로 出現하엿다 바야흐로世界는 帝國主義와 共產主義가 拮抗하고 잇다 我等은 中道의目的을 [illegible] 하야 [illegible] 時機이다 [illegible] 헷스副總理의 開會演說이 終了되자 黨文部長바그너氏는 히틀러總統의 宣言을 代讀하엿다 右宣言은 過去六個年 나치스政府의 業績을 賞讚하고 다시 過去[illegible]年間의 [illegible] 內容은 左와如하다 [illegible] 數國以外의 歐洲 [illegible] 革命의 兆 [illegible] 國際的 [illegible] 에 歸着기우리지 안코 [illegible] 四年間 나치스政府와 同樣 [illegible] 政權을 取하엿다하면 歐洲는 今日과 如한 現狀을 呈하지 안엇슬것이다 나치스黨은 祖國의 國政을 마튼以來 四個年 我等이 남긴 業績은 實로 偉大하다 이것이 곳革命이 안인가 我等을 除하고 他에누가 이困難한 事實을 遂行할수 잇슬가 이섯겟는가 나치스政府는 實로奇蹟遂行에 成功하엿다 獨逸國軍의 整備는 곳이奇蹟의 成果이다 베르사이유條約의 [illegible] 桎梏은 [illegible] 打破되엿다 [illegible] [illegible] 以上의 [illegible] 하야 [illegible] 이에 新經濟四個年計畫을 闡明한다 本計畫은 植民地要求도包含한것이다 新計畫은 再軍備計畫의 達成과同時에 開始될것이다 今回四個年間에 從來外國에서 輸入하든 原料로부터 完全獨立하지안으면안되다 我等은 調査研究를 國內資源의 利用開發을 遂하야 自國內에서 必要한 原料를 製造하여야할것이다 本計畫의 實現은 오직 我等의 精力과 決意에달려잇다 其過程에는 非常한 困難을 伴할것이다 그러나 나치스黨은 「不可能」이라는 말을 除去하엿다 夜 左와如히 述하엿다

一、獨逸國軍의復興의結果 獨逸은 武力에 威嚇되여 植民地를 返還할수는 업다

一、舊獨逸領도고、카메룬各地方은 佛國政府가 敎(?)法의 巨費를 投하야 開拓한것으로 只今 새삼스럽게 委任統治領을 返還할 意思는 업다

伊政府도不安懷抱

【羅馬九日發同盟】히틀러總統의 植民地要求는 事前에 미리伊太利政府와의間에 協約이 成立되지 안엇든가 觀測되는데 伊太利政府는 히틀러總統의 言明에 無關心을 假裝하고 世界大戰에서伊太利에 參與치못하엿슴으로 히틀러總統의 分配에 獨逸의植民地의 府는 何等不安을 感하지 안는다고 言明하엿다

英、愼重態度를固持

【倫敦九日發同盟】히틀러總統은 九日뉘른베르크에서열린 나치스黨大會에서 『新經濟四個年計畫』을 發表하는 同時에 『獨逸國民의 生存權』이라는 名目으로 公然히 植民地返還要求를 提示한것은 『歐洲 各國에 異常한 衝動을 與하엿는데 英國政府는 事態의 重大性에 鑑하야 一切批評을 保留하고잇다 但 칠버린藏相이 英國下院에서 委任統治領을 獨逸에 返還할意思는 업다고 公言한事實에 徵하드라도 英國政府는 即時히틀러總統의 返還要求를 應諾하지 안흐리라고 觀測된다 萬若 히틀러總統이 歐洲政局의 處理에對하야 協定할境遇에는 英國政府도 植民地問題에 關하야 再檢討를不辭하리라고觀測된다

獨植民地返還要求 佛政界强硬히反對

【巴里九日發同盟】히틀러總統의 植民地要求에對하야 佛國政界는 强硬히反對意見을表明하야 九日 [illegible]

植民地返還要求 合法手段希望 聯盟事務局態度

【주네브九日發同盟】聯盟事務局에서는 히틀러總統의 植民地返還要求에對하야 別로驚愕하는빗은업스나 어데까지 合法的手段으로 臨하기를 要求하고 特히 佛英兩國政府의 協議가 必要하다고보고잇다

僞路에彷徨말고 正道에도라오라

陸軍、當局談形式으로聲明發表

【東京電話同盟】陸軍에서는 成都、北海事件에對하야 十日午前十一時 當局談의 形式으로左와如한 態度를表明하엿다

成都事件에 뒤이어 北海事件이發生한것은 日中國交上에一大暗影을 投한것이라고 말치안흘수업는것은 實로 遺憾이다 日本은 東洋平和의 確立을冀望하고 더욱 全般의平和를愛好하는精神은 終始一貫 조곰도 變함이업다 中國國民政府는 革命에 시달리면서 今日까지 이에 十數年을 經過하야 여왓스나 其出發에當하야 國民의指導精神과 其指導工作에 一大缺陷이잇섯고 今日도아직 其僞路에서 彷徨하고잇는것은 否認할수업는 事實이다 이十數年間에 兩國間에이러난 大小各種의事件은 거이 其僞路의 荊棘에不過한다 每般日本이取하여온 措置는 平和를 愛好하는남어지 荊棘을除去하는精神에서 나오든所爲에 不外한다 成都事件이나 또는 北海事件도 恒常 이와同樣이다 禍根은 거기에胚胎하여잇는것으로 事件其自體에 對하여는 日本政府에서 斷乎한 手段을取하리라고 確信하나 要컨댄 國民政府가 速히 僞路로부터 떠나 斷然 平和確立을爲한 正道로復歸하야 眞正으로 日中親善提携의 曙光을 發見치안는限 이러한種類의 事件의根本的絶滅을 期하기는 不可能하다

激烈히反日宣言

撤退命令비든十九路軍

【廣東十日發同盟】當地軍界의消息에依하면 北海로부터 撤退命令을바든 蔡廷楷以下 第十九路軍幹部는 九日、日本의侵略主義와 蔣介石氏의 屈辱을 痛駡하야 『國仇모다天을不戴함』라고 激越한 宣言을行하고 第十九路軍獨立宣言을行할 形勢라한다 日中雙方調査員이 調査任務를 圓滿히 遂行하고못할은 오직 同軍에 對하야 國民政府가 어느程度까지 斷乎히 處斷하고저하는데달려잇다

重光大使滿洲國視察

【東京電話同盟】新任駐蘇大使重光葵氏는 赴任하기前에 滿洲國과 中華民國을 視察하기로되여 十三日 東京出發 途中 伊勢大廟 桃山御陵에 新任告를 行하고 鄕里 大分에 歸省하엿다가 三週間豫定으로 滿洲國을 視察하고 來月一日、廣東하엿다가 赴任하기로되엿다。

八面鋒

猶太人과 猶太人과의 流血의 慘劇이 날로 甚해가므로 英國政府는 大戰後의 愛蘭獨立運動때 모양으로 駐屯軍을 强化하야 彈壓政策을 쓰리라고

◇이에 憤慨한 아라메아人은 撤兵을 主張하야 猶太人은 拍手喝采하야 英國態度를 支持한다고。

◇옛날의 故鄕인 팔레스타인에 우리를 살게해달라는 猶太人의希望이나、至今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드려올수업다하고 反對하는 아라메아人이나 理致업는것은 다 아니다。

◇그러나 結果가 猶太人은 英帝國의 안장이 될 形勢이니 第三者는 孰是孰非를 論키不能。

◇聯盟理事會를 압두고 에디오피아皇帝 故國復興을 努力。

◇法律上으론 에國이 잇지만 事實上엔 에國이 업스니 어찌하리。地圖로나 에國의 版圖를 明示할가。

人事·集會

▲田中武雄氏(前警務局長)辭任人事次 十日來社

▲高田知一郞氏(京城日報社長)新任人事次十日來社

▲李肯鍾氏(朝鮮商工新聞社社長)新任人事次來社

▲齋藤五吉氏(朝鮮日日新聞社社長)李肯鍾氏와同伴人事次來社

▲邊滋列氏(同盟通信社記者)入京人事次來社

白頭山探險記

第二夜神武城은 百花爛漫의花園

◎徐椿

秀한것을 생각할때에 徒步警備員諸君에게 對하야 한가지 感心할 일이 잇다。山路를 거를때에는 短杖을 가지는것과 가지지 안는것과는 越等한 差異가 잇다。短杖을 드러 땅을 짚을때에는 적어도 그瞬間만은 全體重의 半分以上을 短杖으로 支持할수가 잇는 故로 兩脚은 그동안 休養할수가 잇는것이다。

그뿐아니라, 올라갈때에는 팔과 短杖이 힘을 合하야 다리(脚)의 受苦를 덜고, 나려올때에도 亦是短杖이 依支가 되어 다리의 受苦를 덜어주는것이다。그럼으로 短杖을 집고 것는것은 안집고 것는것보다 훨신 수월하다。

그런데 徒步警備員十五名은 다 銃을 한개식, 背囊에 맞지아니하는 사람이가 短杖을 가진이가 한사람도 업다。우리가 登山用短杖을 집고 것기도 이만치 힘이 든다면 저분들은 손에 短杖도 업시 그 무거운 저 다리 압흔것과 저물 疲 銃을 메고 걸어가기가 오작 힘이 들라 하고 생각하면 同情도 가고 퍽 未安하기도 햇다。

여기가 神武城이라는 말을 듯고 어떠케 기뻐하엿는지 모른다。來日길이야 어떠케 되든지 사람에 于先 하로밤 동안은 압흔 다리를 쉬일수가 잇고 疲勞한 몸을 休養할수가 잇다。

神武城(又稱神武峙)은 密林地帶에서는 드물게 보는 曠地다。그曠地에는 枯木이라고는 뿌리조차 업고 奇花妖草가 地面가득 덥히어 잇다。마치 七色실로 노흔 繡방석을 깔아 노흔것 갓다。별로 집고 걸어다니는것이 아깝게 생각되는 곳이다。말하자면 花園이라고 할만한 곳이다。地形은 東西가 길은 長方形으로 되여 잇고、바로 그北便에 豆滿江流源이라는 조고만 내물이 自西至東으로 貫流하고 잇다。

또한 地形이 若干 略하야 바람을 막어 주도록 생기엇다。이미 飮料水가 豊足하고、燃料用 枯木이 裕足한데다가 景致조차 이러케 조흐니 露營地로서는 最適의 地로서 前夜露營地茂峰보다는 훨신 나흔데다。

이곳은 滿洲安圖縣으로 부터 朝鮮茂山、特히 甲山에 通하는 要路가 되여잇는다인고 사람의往來가 比較的 頻繁하엿다는 表跡이 잇다。于先、큰 나무들을 통채로 잘라가지고 [illegible]를 지여 노흔것이 잇는데 크기는 十數名 드러잇슬만 하다。그려고 그 [illegible]은 여러번 使用한 表跡이 顯然하다。警備隊에서는 이[illegible]을 허러버리고 그자리에 天幕을 치고 허러버린 材木은 하루人員의 燃料로 使用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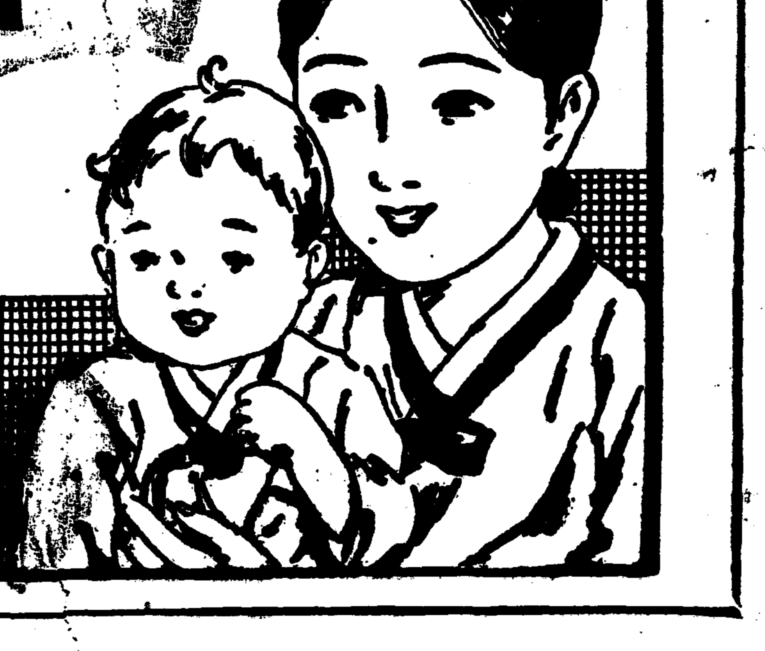
一行은 各各 자리를 꿀나서 適當한곳에 天幕을 치고다서 昨日茂峰에서와 가튼 모양으로 반도 지여 먹고 잘자리 準備도 햇다。말은 [illegible]、馱馬를 아울너서 全部 豆滿江流源左右兩岸에 매여 노앗다。

班別을 따라서 幕이 다를 지어 정해졋고 幕과의 相距가 數間밖에 안되니까 一行의 살림사리는 가튼집에 同居하는것이나 다름 업다。여러사람이 同居를 開始 한 數日을 지나는 동안이면 마저 學校修學旅行의 情景에서 나는바와 가치 여러가지 滑稽가 생기는 法이요。또는 特徵이 따라서 別名도 생기는 法이다。

第一班은 中龍南、中龍均두분이 계시기때문에 一班天幕엔 病院이라는 別名이 붙게되엇다。第二班은 金度演、明 東、金良洙세분이 잇기때문으로 二班天幕은 米國村이라고하고、第三班의 特徵은 學者가 만타는데 잇다。動物學者金秉河氏、植物學者張亨斗氏、同柳達永氏等等은 異常하게도 다 第三班에 編入되여 잇섯다。그리므로 第三班은 이것을 가르처서 學者村이라고 한것이다。第四班에는 金世鎔、金相恒、裴榮健、張命昌、金明國、柳洪烈의 여섯분이 잇섯는데、이가온데는 富者가 多數를 占햇다。그리므로 여기는 別名 金華莊(京城富者村)이라는 이 부첫다。第五班에는 姜夏馨、姜福馨의 三兄弟분이 잇섯다。그三兄弟에게는 三勇士又는 三勇士의 別名이 붓고、五班天幕에는 勇士村이라는 이름이 부텃다。白頭山探險에 三兄弟가 한목 왓다하야 上海事件當時에 準하야 三勇士라고한것이오。三兄弟는 馱馬一匹식을 各各準備해 가지고 行軍에 말을 度數가 만타하야 三勇士라는 名도한것이다。그런데 姜氏세분 은 다른 準備도 斷然 群을 빼엇니와 特히 漢藥을 豊富히 準備해 가지고 와서 一行中에 누가 病이 나면 三兄弟中에 長者인 姜夏馨氏는 반드시 專門漢方醫以上의 藥效에 對한 說明을 부치가면서 患者에게 漢藥을 供給하는것이엇다。그래서 故로 五班天幕은 勇士村인 同時에 漢醫村이엿다。(寫眞은姜氏三兄弟)(續)

泄瀉腹痛 腸胃疾患에

泄瀉·腹痛·腸胃加答兒의 速治良藥



健胃固腸丸

一、本劑는오래동안實驗과多大한信用이엇는 胃腸藥으로泄瀉腹痛胃腸病에代表的名藥입니다

一、더욱本劑는잘팔리기때문에類似品이만히잇사오니사실때에반드시谷回春堂製라고指名하야주시요

藥價 二十錢 卅錢 五十錢 一圓 二圓 三圓 五圓 十圓

小兒에게는專門의小兒固腸丸이有함

服用하기쉽고便利한 健胃固腸錠

泄瀉腹痛에 一回二錠

腸胃衰弱에 一回一錠

錠劑의藥價改定

價格半減에相當한內容增量을斷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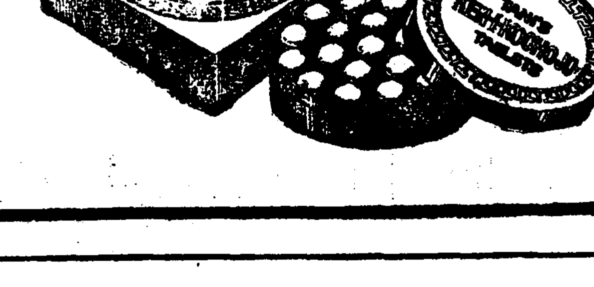
新藥價

金三十錢(舊十二錠入)은二十一錠入

金五十錢(舊二十一錠入)은四十八錠入

金一圓(舊四十八錠入)은百二十錠入

金三圓(舊二百錠入)은五百錠入



大阪市東區伏見町 合資會社 谷回春堂 振替大阪一七〇番

慶北에第四次豪雨 各地의交通杜絶

道警察部、管下에水防警報

【大邱支局電話】 아흐랫날 오후 여섯시부터경상북도일대에는 또 넷째번으로 큰비가 퍼붓기시작 하여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리 고잇는중인데 열흘날 오전열시 까지 비나린분량은 ▲大邱七六「미리」▲榮州八五▲安東八「미리」▲統營四五「미리」▲安東四○「미리」 등으로 그중에서 영주지방은정전(停電)상태에 잇다 그리고 서천강(西川江)이 한「미돌」、상주(尙州) 락동강(洛東江)수위가 한미돌지부에 각각달해서 또다시 증수되가는 중이다 따라서 대구(大邱)、합천(陜川)、고령(高靈)、거창(居昌)、경주(慶州)를통하는 각방면의 자동차교통은 끈허지고말엇다 이와동시 경북경찰부에서 각하천의방수경고를 발햇다

大同江增水로 七十餘戶가浸水

罹災民은公會堂에收容

【平壤支局電話】 작구일평양일대에 호우가습래하야 십일오전세시현재평양시내의 대동강수위는 오미돌삼십확에달하얏고 보통강(普通江)수위는 륙미돌에달하얏는데 이때문에 대동강안에는강안도로가 침수되엇스며 보통강안은 칠십여호가 침수되어 리재민들은 방금공회당에 수용하야 구호중인데 오늘아츰다행히 비는개엿고 물은감수중에잇스나 평양을중심으로한 리군일대의농작물피해가 불소하다고한다

작물이침수되여 그피해가 상당한액에 달할모양이나 상세한것은 아직알수업다

平南의豪雨로 農作物被害不少

【平壤】 삼사일동안을 계속하는 호우는 평남일대에 교통두절사태 그리고농작물의 피해가적지 안허 조(粟)는 벌이도닷고 기타농작물은 발수고인때문에 피해가 만흔터이며 각하천은사미돌이상 칠미돌까지의 증수를 보아 수해를당한지방이 적지안흔상태이다 평양측후소에서 발표하는 각지우량은 다음과가트며 금십일까지 다소강우가 잇슬것가트나 그후는 그리큰강우가 업슬터이라하므로 측후소발표가 어느정도까지 정확하다면 수미를엿수 잇다고보이나 그러나 금후천후의사래는 전고미증유의 한해로 피해가만흔 평남의농작물을 아조망치지나 안흘가하여 퍽도우려되고잇다

▲平壤六一미리▲寧邊七二▲安州新里八五▲安州八二▲鎭南浦五○▲平原八九▲价川九五▲順川七五▲孟山六八▲陽德一一三▲中和五五▲德川五六▲熙川八九▲成川七八▲江東八六

滿浦線不通

【平壤支局電話】 여러날을두고계속하는 호우마에 만포선(滿浦線)초상(草上)명문(明文)간은 제방어십오메-타가터저 구일아침부터 동구간은불통에빠젓스며 이재방이 터지는바람에 근처농[illegible]

全南에또豪雨

榮山江刻刻增水中

【光州支局特電】 이곳에는 지난 아흐랫날밤 열한시로부터 여덟시까지사이에 백확십칠미리나되는 큰비가 나리엿는데이번도또 전라남도각지방의 농작물의반는 손해는막대하다따라서영산강(榮山江)도 지금 계속해서 증수되는중으로 라주(羅州)평야는 세번째의 침수로 드디어 수확할 건덕지가 업시 되바릴모양이다

麗水、松汀里間과 各線鐵道不通

自動車線杜絶도多數

【光州支局特電】 전라남도 보안과에(십일정오까지)도내 각지에서 드러온 보고를 보면 구일밤의 폭풍우로 말미암아 송정리(松汀里)려수(麗水)사이의 철로는 또불통중이며 보성(寶城)벌교(筏橋)사이와 보성 광곡(廣谷)사이와 리양(梨陽)립교(笠橋)사이와의철도는 문허저서 불통중인데 개통되기까지에는 상당한시일이 걸릴모양이다 또도내자동차선로침개소도 교통이막혓다 그선로는 장성(長城)순창(淳昌)사이와 순천(順天)벌교사이와 보성,동복(同福)사이와 벌교,보성사이와 영산포(榮山浦)령광(靈光)사이와장흥(長興)영산포사이와 남평(南平)영산포사이등이다

無被害地의 米作은大豊

경북지방의 수해피해상황을조사하려 출장중이든 농림국 산본(山本)기사는 구일밤에 도라왓는데 그기사의이야기를 드르면 경상북도의수해를면한 지역의벼농사는 아주잘되어서 삼백미돌가량되는 노픈곳에잇는 천수답(天水畓)도 일단(段)에 대하야 석섬의수확은 확실할듯하다한다 그가 시찰한곳은 경상북도뿐이엿지마는 다른지방도 대개동양으로 풍수잇스므로 전체적으로는 수해로말미암은 감수(減收)를 넉넉히보충할수잇슬듯하다한다 따라서 금년의벼농사는 수해만안입엇드라면 상당히증수할수 잇섯든모양인데 수해가잇서서도 전체적으로는 비관할필요가 업슬듯하다한다

阿片密賣犯逮捕

산동성(山東省)출생왕린정(王麟亭)(三七)은시내 봉래정(蓬萊町)삼정목팔번지 중국인 호떡장사 신성균(申成均)방에 류하면서 아편밀매를하다가 구일오전 열한시삼십분쯤에 서대문서형사대에게 체포되엿스며 아편밀매여섯「그람」도 압수를 당하엿다

宋南洙에게 上告棄却의意見

일, 이심에서 모다 사형판결을 밧고 고등법원에 상소중이든 간도공산당일파 만주연길현 송해향면협구(滿洲延吉縣[illegible])출생 송남수(宋南洙)(三七)에 관한 치안유지법위반사건공판은 십일오전열한시 고등법원에서 힘두(寬德)재판장 심리 촌전(村田)검사 관여미에 열리여 검사의간단한상고이유의의견진술이 잇슨다음폐정하엿는데 언도기일은 추후로결정키로되엿다

基靑勉勵會 第三回協議會

九日京城서開催

조선기독교청년면려회 조선연합회(朝鮮基督敎靑年會勉勵會朝鮮聯合會)제삼회 협의회는 구일 오전아홉시부터 종로(鍾路)이정목조선예수교서회 회의실에서 조희염(曺喜炎)씨사회하에 열리엇는데 전조선각지와 동만(東滿)에서온 회원 약삼십여명이모혀 회가 예에의하야 진행된후 열시쯤 폐회하엿다 그리고금번회에서 결의된 사항가운데의 다음회의지 결정과 임원개선의 결과는 다음과가트다

一、第二回四年大會及第四回協議會開催地 大邱

一、任員改選

會長 曺喜炎

副會長 金[illegible]

總務 李大[illegible] 宋大[illegible]

三南水害罹災民 北朝鮮移送準備

수해지 리재민구제책으로서 북조선에 이주식힐계획을 하고잇는 총독부에서는 먼저 강원도에서 오일부터 이십사일까지에 일백륙십가족약팔백명을 이송하야 라진(羅津)도시계획구역에 수용하게되엇다 뒤이어강원도에서 이백오십가족 일천이백오십명을 전라북도에서 이백가족천명을 충청북도에서열가족오십명을 각각이송할터이다 그리고경상남도에서도 조사를 기다려 이송할계획이라한다

蔬菜全滅로 生活을威脅

【永登浦】 전고미증유의 금번대홍수로인하야 소채재배로유명한 시흥군신동면(始興郡新東面)일대의 농작물피해는 약팔만원에 달한다는데 동면은 한강연안에 개재하야 그토질이 소채재배에적절함으로 대경성을 배경삼고 종래소채경작을 하여오든바 그 생산액은 경성시장에서 진산되는 소채소비량의 약오할을점령하야 륙십오만부민의 찬장과가튼 중요한지위에잇서서 경성시장의소채시세를 좌우하고잇든터인데 오십여일이나 계속되는 장마로 전멸상태에 빠저서 시민들의생활상 큰위협을 보게되엿다하며 특히 선조때부터 전지전래하야 소채를전공으로 경작하여오는 이백여호소작농민들의 금후생도가 우려된다고한다

南原稅務署 落雷로全燒

【南原支局特電】 구일 오후부터 전북 남원(南原)일대에는 폭우가 쏘다지면서 천둥이 시작되어 일반주민의 간담을 서늘케하더니 급기야 오후아홉시쯤되어 읍내 남원세무서(南原稅務署)본관에 락뢰되어 불이일어나는 동시에 양석목조일동을 전소하고 동시경에 진소하얏는데 손해는 륙천오백원가량에달하고 진화당시에 소방조원 세명이 경상을 당하얏다

土兵團百餘名 大擧撫順城襲擊

滿人二十餘名拉去、四名刺殺

附近同胞續續避難中

【撫順】 지난칠일오후 여섯시반경 무순성남관(撫順城南關)에 무장한 토병백여명이 습래하엿다는 급보를접한 무순일만군관헌(日滿軍官憲)에서는 곳현장에 출동하여 약한시간이나 맹렬한격전을하게되엿는데 토병은만주인 이십여명을 인질로납거하여가는 동시에 만주인네명을 창으로찔러죽이게하고서 북방산악으로전부러갓다고 말햇다는바 이로인하야 부근에사는 농민동포이백여호와 만주인대다수는 일대공포를느끼고 방금무순지가로 속속피란중이므로 무순성남관은대혼잡을 일우고잇다고한다

各地天氣(今朝六時)

中江鎭	曇	江陵	曇
新義州	晴	大邱	雨
平壤	晴	釜山	曇
仁川	曇	下關	曇
京城	曇	大阪	晴
全州	雨	東京	曇
木浦	雨	天津	晴
群山	雨	青島	晴
雄基	曇	上海	曇
城津	曇	新京	晴
元山	曇	奉天	晴
營口	晴	大連	晴

여류시음경기단(京城女流詩吟團)의 출연이 잇다한다

올림픽選手 歡迎會

全日本의 興望을 걸머지고 世界올림픽마라손制覇를 完成한 孫基禎、南昇龍兩選手는 十月初旬朝鮮에 歸還할터이며 朝鮮體育協會에서는 兩選手를 비롯하야 庭球 蹴球 拳鬪等 朝鮮出身代表選手의 歡迎會를 來十月十日午後六時半부터 京城府民館에서 盛大히 擧行하기로되엿다한다。當夜에는 出場選手의 人事와 孫南兩選手의 制覇報告演說을 請하기로되엿다。

京城府卓球豫選

◇…朝鮮神宮卓球京城府豫選會는 九月二十日午前九時부터 淸凉里京城帝大豫科講堂에서 開催할터이라는데 參加希望者는十二日까지 京城府社會課로申請하기를바란다고한다 그리고 選拔人員은十五名이라하며 出場資格은 京城府內在住者에限한다고한다

府廳6 仁川4

京日主催의 第十三回全朝鮮野球爭霸戰準決勝…全仁川對京城府廳戰은 十日午後一時부터 京城球場에서 石井(球)中村、大島(壘)三氏審判下에 京城府廳先攻으로 開始되바 結局六對四로府廳勝捷하야 決勝戰에드러갓다

◇投捕‖(仁川)橋口‐戶祭(府廳)松元‐崔仲乙、龜井

府廳0000010302

仁川1002010000

4…6

國防敎育會主催 時局問題講演會

十三日開城에서開催

국방교육회조선본부(國防敎育會朝鮮本部)에서는오는 구월십삼일오후륙시반부터개성(開城)에서 시국문제대강연회(時局問題大講演會)를 개최한다는데 연사는도변경성사범학교장(渡邊京城師範學校長) 정원륙군포병중좌(井原陸軍砲兵中佐) 지전박사(池田博士) 김륙군보병소좌(金陸軍步兵少佐)의 제씨라하며 동일 경성

"災地處女"를노리는 吸血誘拐魔의跳梁

釜山署에惡德仲介者被逮

【釜山】 빈궁에우는 농촌의무지한처녀들을 가진감언리설로 속이여서 얼마간의돈을 그부모에게주고 머나먼타국에 다리고가서 파라먹으려다가 검거되엿다 한인신매매중계자가잇다 지난팔일오전두시경 부산경찰서 형사대가 부산부내 곡정방면에출동하야 주소를 대만초음정(臺灣初音町)에두고 수일전에 부산에 들어온 김승제(金承濟)(四一)라는자를 검거하야다가 엄중취조한결과 그자는 지난팔월이십일경에 대만서 부산으로와서 김해(金海)량산(梁山)구포(龜浦)등 리재지로 도라다니면서 십칠팔세되는 처녀를 그부모들에게 가진감언리설로 속이여서 전차금(前借金)이라명목하에 금이백원씩을주고 증서에는 사백칠십원으로만들어 도장을바다서 부산으로다리고왓는데 그독아에걸린처녀는 다섯명이며 그중 구포(龜浦)강정수(姜鼎守)이녀 강수련(姜水蓮)(一七) 김해(金海)김진곤(金晋坤)이녀 분이(粉伊)(一七)외삼명이라하며 이외에도 지난번가을에서 부터수차에 수십명의 처녀들을 전과와가튼 수단으로 대만으로 다리고가서 인육시장에파라먹은일이 잇다한다 그래서 부산경찰서에서는 취조를 계속하는동시 대만경찰서에 조회를 하고잇는중이라한다

三千七百의災民

주먹밥조차끈허진

金海郡廳에서中止

【金海】 풍수해로 인하야 의식주를 악마의 탐랑에 떠나려보낸 그들은 김해군내에만 삼천칠백오십구명인바 일시는 김해군당국에서 주먹밥을 배급하엿스며 여러단체의 구호에 근근히 연명하여오든바 작팔일부터는 면내각처 피란민수용소에 군당국에서는 주먹밥을 폐지하엿든바 그들은 무엇을 먹고야 살아나갈것인지 속수무책한 삼천여명은 당국자의 계속적 응급구제책을 바랄뿐이라한다

金海鳴旨江岸에 屍體數十個漂着

腐臭에住民大困境

【金海】 지난번 미증유의 수해에 낙동강연안에서 떠나려온시체수십개는 김해군명지면(金海郡鳴旨面)로전(蘆田)에 밀리여 썩는내음새에 부근주민들은 대불안에 싸혀잇는바면당국에서라도 가매장의처분이잇기를바란다한다

蓬萊町強盜事件 全然迷宮에?

기보=지난달이십구일새벽에 봉래정(蓬萊町)에잇는 잡화상에드러가서 침실중에잇든 주인의형 채인서(蔡仁瑞)(三五)를 식도로찔러죽이후 현금사십원을 집어가지고 다러난사건에대하야 소관서대문서는물론 전경성 경찰이 서로공명을 다투다시피된 이사건도사건발생후 열사흘되는금십일까지 하등유력한단서조차잡지못한모양으로역시 전과자를주로 수사는 계속하고잇서도 그범위는점점넓어만지고잇서 당시 잔인한범행이듯는사람으로 하여금귀를막게하든이사건도 전연미궁에드러가는모양이다

天氣豫報

概況 弱한低氣壓은 滿洲黃海南部와 天津앞바다에 잇스며 朝鮮半島의氣壓配置는 퍽不安定하다 高氣壓은 千島方面에七六四미리를 보이며 日本本州에 퍼지고잇다 滿洲는 맑으나 朝鮮은흐리고 平南地方은 비가오고잇다 日本內地는흐리다

豫報 오늘밤京城地方은 개엿다흐렷다하며 明日도갓다 京畿道全區도 개엿다 흐렷다한다

昨日 最高 二五度九

同 最低 一六度四

今朝 最低 一五度六

今日 正午 二三度一

남의목숨救하려다 제목숨바친監視員

十日午後永登浦驛附近의慘事

功못이룬殉職美談

【永登浦支局電話】 십일오후령시 이십분쯤하야 부산(釜山)을떠나 안동(安東)으로가는 제삼십일호 급행화물렬차가 영등포역을 떠나 룡산을향하야 기린맥주회사 압 횡단도로에서 약이백메돌가량되는 지점에 다달엇슬때에 횡단도로 감시원 리상원(李相元)(三四)은 곳교통차단긔를 내리든바 때마침 수원쪽에서오든 큰길에서 말한필을 비어가지고오든 영등포정 오백오십륙번지 리중식(李重植)(二五)이라는 귀먹으는이가 차단긔엽헤잇는 삼국상회(三國商會)저탄장편쪽 으로부터 선로를횡단하려함으로 횡단도로감시원 리상원은 위험하다고 소리를첫스나 귀가어두운관계로 그대로 건느려고만함으로 리상원은 그늙은이를 구하기위하야 선로에뛰어들어가서 안고나오다가 전긔렬차에 약십메돌이나 밀리어 두사람은 무참히도죽고 말엇다 이급보를바든 영등포경찰서에서는 계원이 현장에출동하야 검시를마추엇는데 감시원 리상원은아직 독신자로 그의어머니를 모시고 부지런히일하든 모범감시원이엿다고한다 이러하야 철도국에서도 그의용감한 순직에 대하야 적당한표창을 할터이라고한다

開城

赤誠!救濟品遝至

委員들의猛活動으로 一日醵金四百圓

婦人班에서는衣類四百點收合

【開城】 기보 지난칠일 부내 고려청년회관내에서사회각단체 대표급언론기관대표 이십여명이 모혀『수해구제회』를 조직한바 즉석에서 동회장 리연교(李淵款)씨가 백원을 희사하얏든바 그는 기보한바어니와 그후 구제품모집위원으로 조선중앙일보지국장 진홍섭(秦洪燮)씨 고려청년회리사 림병식(林昺植)씨 중앙례배당 리경호(李敬浩)씨 본보개성지국장 김지원(金鎭元)씨등 오륙인은 제일선에 출마하야 폭우를 무릅쓰고 시내각정으로집집마다를 친히방문하엿든바 그들의 동정에대한열의는 실로장상이상으로 고조에달하야 하로동안 모집된금액만이 사백원을 초과햇다는데 부인반에서 따로히 별동대를조직하야 의복만을 것기로된바 이것도벌서 사백여점을 초과한현상에잇다

成老婆의赤誠

【開城】 지난팔일 부내 지정(池町)이백이십이번지 함임오(咸壬午)(五五)란늙은마님이 본보개성지국을차저와 옷세벌을 기부하며 『대단부끄러우나 나도참아인정에 그냥잇슬수업서 이걸가주구와소』 산가티싸히는 동정금품에 티끌에 보탬이나되게해주는하고 가장겸양을표하며 기탁하고도라가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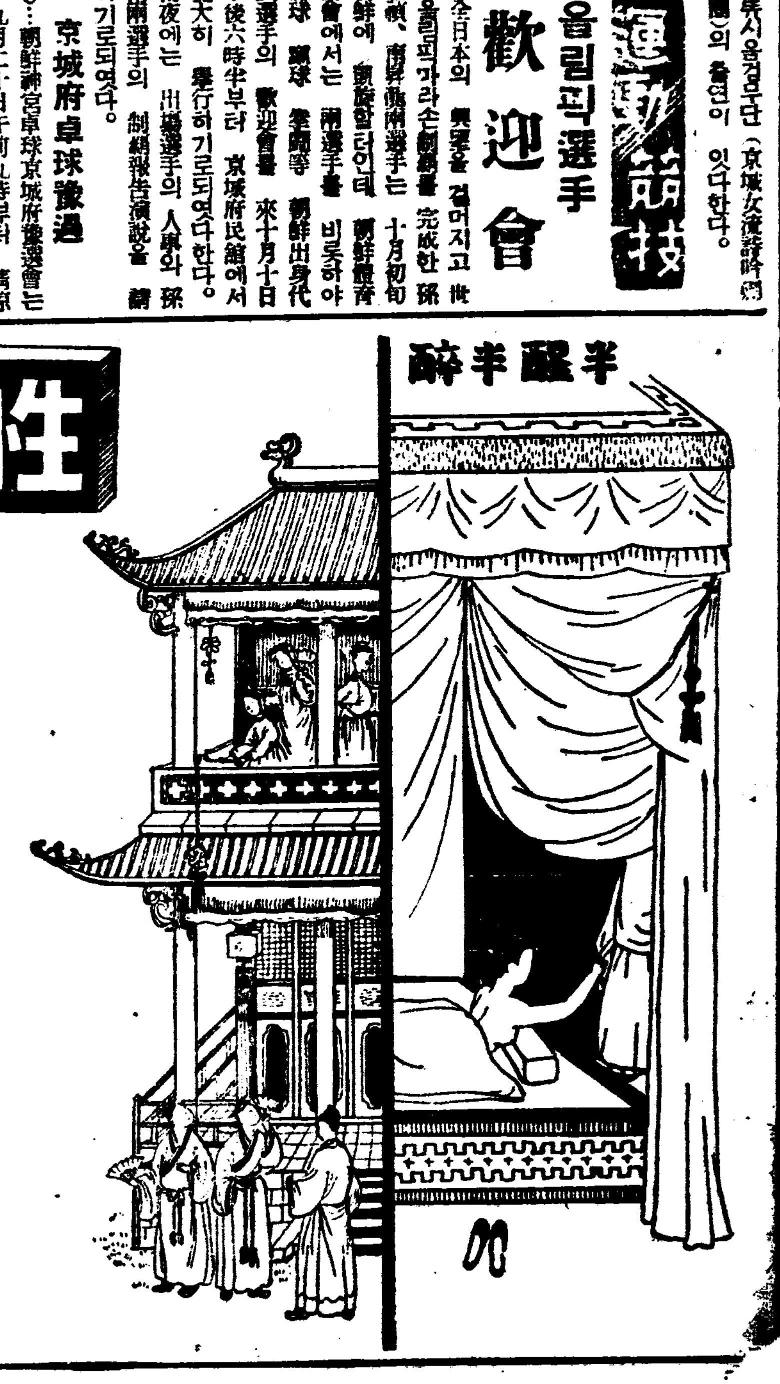
하로賃金을 災地同胞에게

松高實業織工의義擧

【開城】 한번도아니요 두번재이나 물난리를겪고 생지옥에서방황하고잇는 리재동포의 참상을 몸소내일가티 생각한 개성송고실업장(松高實業場)남녀직공 일동과 직원일동은 일주이 동정금을모으기에 노력햇든바 지난 팔일에야 전부 수금되여 즉시 본보개성지국에 기탁한바잇는데 그들직공은 하로삐품이삐지게품 팔은 전재산을 희사하는의협심에 일반의칭송은 놉다한다

開城育英講習會 無産兒童의熱誠

【開城】 개성의수해구제열은 오히려 무산학원아동들에게서 더욱활발한현상을보고잇는바 지난 구일에는 부내남산정(南山町)육영학술강습회(育英學術講習會)소녀한명이 폭우를무릅쓰고 본보개성지국을래방하야 『재란을당한 언니에게…』란 눈물겨운편지와함께 삼원륙십전을 가지고와서위탁하고도라가갓다



性 催春秘法の紹介

不老女悅妙劑의大發見

老人이나 젊은이나

衰한慾情이一瞬에興奮된다

支那傳來의藥法에萬倍優勝

性學聖醫學博士 羽太銳治先生 死를賭해完成

男女一雙의사랑하는行爲는地球의生命을保護하는單位다男女가完全히目的을達하지못하면地球가滅亡할바게업는故로靑年壯年期에男子의本懷를밟고서同復을眞摯하게圖謀하는것이나六十七十의老體가衰한本能을恢復하랴는것이나賤한快樂을貪한다는意味보다더重大한地球繁榮의因이되는것이니秘法을硏究하는者부끄러울것이조금도업스니慾情이안일어난다면男子로서 이以上부끄러운일이업고 世界는進步가 막다른곳에닥치어 滅亡의一途를갈바게업다。

人類를支配하는最大最强한것은性的興味이다

妻一人에過剩하는性力

在滿 橋田 五郞

大發明家羽太先生의德으로普通以上으로精力이旺盛해지고目下의形勢로는妻一人만을지킬수잇을것갓지안습니다結婚에두번失敗한나를事情을말하지아니한세번재의現在의妻는異常하게알지마는부끄럽게도思春期의自瀆으로性器의發育이나빠、初婚初夜에妻帝資格이업는몸임을알고悶悶悲觀의골형에서보내엿습니다 女子에게滿足을주지못하는니의不具한몸에참고잇슬妻가업습니다妻에게는두번다 나는헌신짝가티버림을밧아大發見、キングオブキングス의神藥을빌어서지금에는妻一人에게는다쓸수업는精力에實은따한事情입니다。

眞正夫婦愛를처음알아

在鮮 林 滿夫

젊은기운으로性의無節制한濫費가二三十代에발서별이나려서夫婦生活이絶望에가까운故로家庭에波瀾이끈힐새업고家庭의不快를따른곳에서補充할작정으로秘密히엇은女子도三日만에相當한金品을가지고간채行方不明이되엿습니다痛切히性力의必要를깨달아支那千古의藥房으로부터最新의臟器藥에이르기까지모든興奮刺戟劑를다써보아도效果가滿足한것이업서人生途上의年齡으로人間最大의悅樂과永久히訣別을嘆息하고잇더니羽太博士大發明의キングオブキングス를服用하기始作한後부터는특히것듯한性力이體內에發하야妻라는것의存在의眞價를알수잇게되고妻도다른편의價値를안것갓습니다

老體에湧出은無限한性力

在京城 金子 壽市

老生의興奮增進劑服用의經驗으로는飮食藥의右에나설것이絶對로업는줄압니다。老生이젊어서일하는外에道樂이업고그德으로財産을꽤모앗습니다 老生은 그런데도女子와交際上의秘訣을몰라서 桃源의陶醉境을맛보지못하고幾十種의媚藥을쓰는中에評判有名한キングオブキングス의服用이 動機로주름진老顔에忽然脂肪이생기어廿代가티보이는性力이老體에發現되어젊은女子와너무가까히하는故로子息들로猥褻하다고몹래들하는모양인데이러한것이長生의秘訣이라고自身은알고繼續キングオブキングス의服用으로無限한性力이湧出하야人蔘가튼것은名脚도못드립니다

春情이大增發 되는性器海綿體의强大膨脹

性學聖醫學博士羽太銳治大先生이 死를賭하야 發明을遂한快樂興奮의世界唯一劑キングオブキングス를服用하면體內를辻廻하야服用期間中만有効하고마는따위臟器藥人蔘等의强壯劑와一時刺戟의草根木皮花實과科學劑의媚藥類와全然달라서直接性器根本인海綿體라는緻密한의속을徹底的으로膨脹케하야興奮케하는故로全身에刺戟을與한다는것과本藥劑로奔馬와가티날뛰는精力을遂發할지라도絶對로衰하지안는永久性과가二大特長이어서 一粒식完全한生命과魂을吹込한것이다本藥劑에調合한秘藥中에는은世界의何處에도類가업고獨占이니此意味로도秘藥이다

御註文은御便利하게

キングオブキングス는羽太先生이特殊學者의良心으로中瓶(二八○粒入)二圓、大瓶(六○○粒入)五圓、小瓶(一○○粒入)一圓의安價로頒布하는中이다。御注文에는幾圓分이라도藥書와左記總代理店으로보내면代金引換으로即時送付하므로第一迅速하고便利하다。但送料는四十二錢을加算하십시오。

東京市芝區通新町十三ノ一

總代理店 合名會社 春泉堂

振替口座東京七七一

먹으면 곳 듯는 キングオブキングス에는 特色에類例업다

慢性胃腸病에는 アイフ(아이후)

泄瀉腹痛、食慾不振의 因은 이것!

胃腸病도慢性이되면 食慾이衰할뿐만아니라、頻繁한泄瀉때문에 더욱衰弱해지고、榮養이顯著히低下하므로누구나、榮養偏重이되기쉽지만、肝要한 消化吸收機能이極度로低下하는동안은、未消化의 榮養素를補給하여도쓸데가업고、胃腸組織의强化와 榮養의充實等容易히바랄수가업는것입니다、그것보다도 食慾不振의原因을除하고泄瀉腹痛의根源을막는것이 胃腸病治療의急所이고、榮養恢復의 捷徑이아니면안됩니다

그런데慢性胃腸病의障害는極히複雜하야、暴飮暴食、咀嚼不充分等、오래동안無理와不攝生이遠因이되여、刺戟이蓄積하여서胃腸粘膜의炎症에서부스름이생기고진물러저서、胃腸筋肉도弛緩하야無力狀態가되므로、가슴아리、噯氣、가잇다고생각하면、胃部의停滯、壓迫膨滿의感도잇고嘔吐도잇스며、胃痛、腹痛、泄瀉、便秘도잇는等여러가지症狀이錯綜하야집니다、그러므로한症狀만을捕捉하야消化不良이라던가、胃酸過多、라던가、決定해버리는것은速斷으로서、單只、胃酸過多、消化不良食慾不進이라고해도그症狀背後에는往往、胃腸가다루胃弛緩症이잇고、胃下垂、胃擴張도잇스므로이障害의뿌리인胃腸粘膜의炎症糜爛弛緩을治癒하고分泌及蠕動異常을救濟하지안는限 胃腸機能의更生은期하기가困難합니다

따라서、이런病根排除에는治療藥아이후의 病原對症二重의作用이、效果的으로胃腸內壁의瘡面에沈着하야炎症을治癒하고、粘膜을强하게하며、弛緩을 緊縮식히고、分泌及蠕動異常을整齊하는同時에腸管內의有毒物質을吸著하야體外에 排泄하는等、廣汎한病原治療를하므로가슴아리、噯氣는말할것도업고、 胃痛腹痛、泄瀉、嘔吐、消化不良、食慾不振等慢性 胃腸病의不快한諸症狀도消退하야 胃腸機能의健全한活動을助成하는道理입니다

藥價

四日分	七十五錢
八日分	一圓五十錢
十七日分	三圓
特製十一日分	五圓

◀全國到處有名藥店에잇다▶

大阪市東區淸水谷西之町
發賣本舖 順和商會
振替大阪三四五五番 電話(東)五○○○・五○○二・五○○三番
東京 東京市本鄕區眞砂町九番地 振替東京六二二八八番 電話小石川(四)○一○○番
大連 大連市山縣通一丁目 振替大連三七六五番 電話七六○八番

구름우에서서 ─李象範─

사진이란 못미들것 추물도 일색으로

독별한 의복과 단장이필요

◇…사진잘백이는비결

사진을 백인다는것은 현대인의 한 취미입니다。 산이나 들로 산보를 나가다가도 경치나 조코 긔분이나 조흔 때에는 부럽듯 사진한장을 적고시픈 생각이 쏘다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진을 백이라면 요사이가튼 가을철이 제일 조습니다。 녀름에는 너무 치워 서백이는 손이나 받는 사진사나 다함께 긔운이 나지 안는동시에 또 여러가지 판게로 잘 백이여 지지도 안습니다。 하늘놉고 해ㅅ볏이 깨끗한 가을이야말로 가장 조흔 사진을 맨들어 내기에 가장 적당한 계절입니다。 그럼삼아 후일에까지 전해 가시는 사진은 반듯이 이러케 조흔 철에 백여두실 필요가 잇슴을 압니다。

그러나 아모리 가을이라도 옷이라든지 단장이라든지 모다 쳐의하게 하여야지 그러치 안코서는 못생긴 인사진이 흉하게 되고맙니다。 보통으로 보기에 모냥이 나고 맵시가 나더라도 사진으로 되야서는 그 반대가 되는 수까지 업지 안습니다。

의복……◇ 위선 빗갈부터도 자지나 열븐ㅅ흑은 재미업스니 좀 경이라든지 누렁이라든지 잘 엉이가튼 빗이라야 두렷하게 나옵니다。 도포흠뻑은 빗어나 마찬가지로 나온다는것도 알아 두서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문의 는 잔것 까지 고대로 잘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으로차라리 보기실케 나올는지모릅니다。 또 반은 희고 반은 검게 백이도록 하는분이 잇는데 그역시 보기가 조치못합니다。 똥똥한 분은 세로 줄이진 옷을입고 파리한 분이 가로줄이진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똥똥한 것이 홀쭉해 지고 파리한 분은 좀 부대해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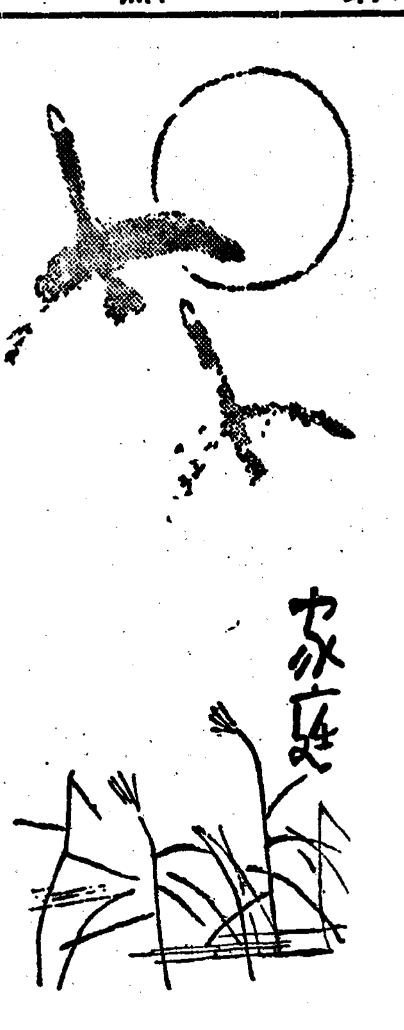
단장……◇ 도대체로 분을 넘어 바르고 뺨에다가 「베니」를 만히 칠하는것은 실수입니다 결혼사진의 신부얼굴이 늘 잘못 되는까닭도 흔히 거긔에 잇는것 입니다。 아이샤도를 해노흐면 눈이 고약하게 보이기쉽니다。 입살에도 베니를만히 칠하는것은나쁩니다。 하여튼 사진에는 간단한 단장이 제일조습니다。 그래서 결혼사진도 매칠지난뒤 단장을 고처한뒤에박는 분들도 업지아닙니다。

긔타……◇ 파리한분은 정면으로 백이는것이 조치만은 똥똥한 분은 조치 못합니다。 똥똥한한분은 모로 백여도 더나뿌고 차라리 아조정면도아니요 또아조 모로도아니요 중간이라야 합니다 키가적은 분은 손ㅅ까지 백이지안는것이조치만 똥똥한 분은 걸터안지말고 왼키의 칠푼쯤 백이는것이 조습니다。 사진을 백일때 제일 문제되는 것은 고만 구더저서 마치 틀에 사람이나 나무사람처럼 되야 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만데를 보고 잇다가 사진사가 말하는때 업는 고개를 도리키어서 청쳐 바아버리는 것만 갓지 못합니다。

"내생일"

두루루루
두루루루
가는 맷돌은
번재떡 붓칠야고 가ㅣ
는 매。
내일은 내 생일。
두루루루
두루루루
엄마는 한나절 맷돌을
간다。

(오장환)



젊은이를울리는 질색할무사마귀

의사도 원인을 모르는병

룸무가조타니 한번시험!

어린아이나 젊은사람들은 흔히 재ㅅ빗나는 무사귀가 엄푹이나 몸에돗는수가 잇습니다 모처 꺼칠꺼칠 하며업는 보기만하야도 흉할뿐더러 손틈이 긔치는것입니다 이것은 의학상으로「심상성사마귀」라는것인데 무엇이원인이되여 나는지도아즉은알수업스며 따라서 치료법과 예방법도 알수업는것입니다 전염한다는말도잇고 안한다는말도 잇스며 약을안써도 자연히어느사히에나 허버리는수도 잇습니다 말하자면 병중에는 제일이상한병이라 홍길동처럼 날뛰므로 어떠케처치 할도리가 업는병입니다 무사귀는 세갈린길에 노힌돌쪽을 주어다가 문지르면낫는다고도하며 명주실이나 머리털로꼭잡어매여두면 업서진다고하는 속귀가 잇스나 다른것은허황하고 머리털이나 실로 잡아매는것은 무사마귀에 혈액이돌지못하게하야 소멸시키는수가 잇는것이니 미듬성이 잇다고도할수잇습니다 속담에 처마끗헤서 떠러지는 비ㅅ물에 얼굴이나손을 씻스면 무사마귀가 난다고하나 이것도 허황한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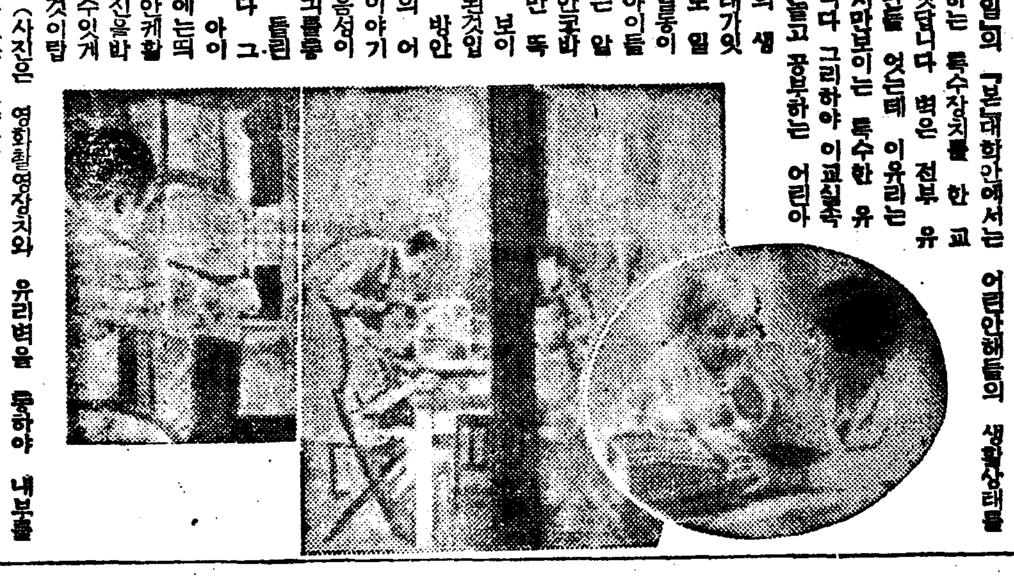
약으로는 초산(硝酸)이라는독약이 잇스나 이것은 여간한전문가가 쓰지안흐면 위험합니다 이십세 전후의 젊은남녀는 주장얼굴에 밥풀낫만콤한것이나는수가 잇습니다 넙적한 원형도잇고 모가조ㅅ빗하게난것도 잇스며 빗갈은 살빗과 거이갓고 만저보면 보들보들합니다 이것은 속귀에나서 외얼굴에번지는것인데 의학상으로는「청년성편평사마귀」이라고합니다 이것은「렌트겐」을 비치면 업서집니다 그외에 오십이 갓가운편은이들에게만 나는 무사마귀가 잇는데 콩알만콤한것이만코 넙적해서 꺼칠꺼칠한것도잇고 기름을바른것처럼 번적번적하는것도 잇습니다 주장목덜미、등、가슴가튼데 나는것으로 이것도 원인을 아즉은 알수업스나「로인성편평사마귀」라고 합니다 이것은 구더지기전에 속히 업서버리지안흐면 나중에 암(癌)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들 몸에 적은무사마귀 가튼것이 작고 나는것은비치 젓빗가튼것도 잇고 살빗 가튼것도 잇서서 양조가리 밋을 밋슬하며 복판이 쑥 들어간것이 잇는데 이것은 전신에 수십여개식 밀생합니다 의학상으로는「전염성속종」(傳染性軟屬腫)이라고하는데 자연히 낫는수도잇스나 다른 병균이 그속에 드러가서 낫지안는수가잇습니다 이것은 무사마귀를 잘 소독한다음 손가락으로 누르면 중앙이 드러간데서 하ㅣ얀것이 나오므로 이자리에「우드경긔」를 바르면 곳 낫습니다。

◇이 「무사귀」에 대해서 신통하게 잘낫는 약이잇다고하야 의학자한분이 발표한바가 잇습니다 그것은 초산이나 그외의 부식제(腐蝕劑)가 아니고 순전히내복만해서 낫는약이니 농촌에가면 대개 어데서든지 구할수잇는율무(薏苡)─아이들이 염주를맨드는 회색빗도나고 감은빗도나는 곡식열매를 까지말고 껍질채 일주일만다려먹으면 어느름에 업서젓는지 모르게 삭어저버린다는것입니다。 아직 의학상으로 보아무슨성분의힘으로 그러케는지는 아직 판명이안되엿스나 엇잿든 율무라는것이 살결의장리를 새고곱게하는 작용이잇다는것은 전부터내려오는말입니다 누구나한번 시험해볼만한일입니다

에기들의생활을 관찰하는설비

독일에서 첫시험

「독일」의 「본」대학안에서는 어린안해들의 생활상태를 연구하는 특수장치를 한 교실이잇답니다 벽은 전부 유리로만들엇는데 이유리는 밖게서만보이는 특수한 유리랍니다 그리하야 이교실속에서 놀고 공부하는 어린아이들의 생활상태가잇는대로 일거일동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압이지안코밧게서만 똑똑히 보이도록되것입니다 방안에서의 어떠한이야기나 음성이 확성긔를통하야 들린답니다 그리고 아이들눈에는띄이지안케활동사진을바을 수잇게 되는것이랍니다 (사진은 영화촬영장치와 유리벽을 통하야 내부를 드려다보는 교수들)



한듯십흔결혼

어느때결혼햇든지 남편이 엇더한지는들랏드도 직장가질하듯한생각이남으로 리혼을시커달라고 재판소에 신청한처녀가미국에 잇습니다 그녀자는「뉴-욕」에서 「딴서-」를잇섯는데 어느날밤술이취하야 사내들과좃지나치게흥청거리고 엇던사내와 결혼할약속이성되여 밤중에 재판소치안형사를깨워일으켜가지고 결혼식을 간단히거행한것까지는 긔억에남앗스나 그후에어더케되엿는지도모지모르며 상대자가누구인지도알수업스니 남편되는사람을차저서 리혼하도록해달라는것 이랍니다

말문이열려 열여섯해만에

열여섯해동안이나 벙어리로지내던사람이 어느날갑작이입을자고일어나서 말을할하게되엿다는 거즛말가튼사실이잇습니다 토이기(土耳其)「이즈미-르」에서 팔십리나떠러저잇는「아이린」촌락에사는「프세인」이라는 농부는 과거십륙년동안을 벙어리로 지내오게 되엿습니다。 그러든것이 지난팔월 멧칠날 자기가경작하든 포

동성애로지내며 생각잔튼「원앙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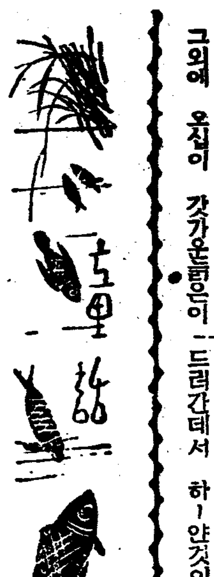
"그친한동무가남자가되다니 그래얼른결혼햇지요"

천생배필!

인류의 신비라 할까 현대과학의 발달이라할까 지나간날 녀자끼리 의 친하던 친구가 한사람은 남자가되고 한사람은 녀자그대로 잇서서 두사람이 결혼하게되엇습니다。 『메리-·웨스톤』양과 『알바-트·부레이』양 두처녀중에 『메리-』라는 처녀는 병원에서 수술을하야 『마-크·웨스톤』이라는 남자가 되여버렷습니다 이것을 안 『알바-트』라는 처녀(處女)는 『마-크·웨스톤』에게 결혼을신입하고 요지음 화촉의전음을올렷답니다。 『마-크』라는 사나이가되여버린 『메리-』양은 일천구백이십사년 영국의 녀자운동의단거리선수로 최고기록을가지고잇섯스나 자기몸을자기가보아서도 이상스러운점이잇서서 이와가티 수술을밧고 남자로변해버렷다합니다 (사진은『마-크』와 『알바-트』)

잉어꾹

裵先權



퍽 오래전 옛날이엿습니다。 어느시골조고마한촌에 얌전한 홀아버지와 어린딸이 잇섯습니다 쓸쓸한 산속이라 집이라고는 안뵈는 따로히 외처떠러진 산미테 외다가 의지해서 살엇습니다。 딸가모없고 차저오는사람도 별로업슴으로 처녀는 외롭게 살어 갓습니다 꼿이웃고、새가노래하는 봄날이나 비가오는밤이나 달이밝은저녁이나 눈이나리고 바람부는겨울이나 바누질품을팔어서 늙으신 아버지을 봉양하고 지냇습니다。

그러하노라니 외로울때가 만헛습니다。

혼자서 바누질을 할나면 업는것만은 집안에 잡자수지 못하는 아버지는 방에누어서 압는소리만 하엿습니다 봄이면 차저오고、가을이면 돌아가는 어엽븐제비가 그의동무엿스며 여름이면 수양버들에서 길게노래을 부르는 매암이와 쓰르래미가 그의 마음을 위로하엿슬 뿐입니다

그러나 초록빗제비는 삼월에왓다가 구월에는 도라가고 듯기조흔 쓰르람이와 매미도 여름철뿐이 엿습니다 피빗가튼 단풍이 거는산을 색스럽게 수노올때이면 처녀의 동무는 모다가버리고 말고 바람은 차고 눈이날릴때야 얼마나 심심하엿겟습니까。

그리하야 처녀는 아래ㅅ동리을 차저가서 어엽분 바둑이 고양이 한머리를 어더다가 아옹거림으로 방울어이며 꿈게길너서 동무를 삼엇습니다。

겨울이지나고 봄이되여 별서 작년에갓 제비가 다시 차자와 잡처마에 집을지어 보금자리를 차지하게 되엿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사흘전부터 고기가 잡숫고십허 하셧습니다 그기색을안 그딸은 그마음은 엇더하엿겟습니가 바누질품을 팔어서푼푼이 모아두엇든돈을 끄내여 장날을 기달녀 동리어른을식혀 고기를 사오라부탁을 하엿습니다。

그이튼날 아침 밥을 짓고 고기를 구어서 반찬을 만들어 아버지압헤다 갓다노코 잡수라고 권하엿습니다 아버지는 상압흐로 오서서 손으로 떠듬떠듬 하시고길버하실제 그때 마침 알미운 고양이가 밥상압헤 안젓다다가 아버지가 잡수시려는 고기를 날름집어먹어버렷습니다。 그러고보니 그의딸은 기가막히고 분한마음을 참지못하야 평생에 성을내여본때가업는처녀가 팔이잔뜩나서 마침손에들엇든 인두로고양이 이마를 따리엿습니다。 그런것이 그고양이는 그만씨러저서 앞발을 발발떨며 죽어버리고 마럿습니다 알미워 때렷지만 죽을줄은 몰랏고 죽고보니 여간 가엽고 원통하지 안헛습니다 그러나 임의죽은이상 아모리불상코 붓상해햇지만 엇더케 할수업는 노릇이엇습니다。 그래서 초마에다가 고이싸서 시내가버드나무미테 고히고히 무더주엇는데 며칠이지난후빨내하러나가서보니 지난번 장마에 그고양이의 무덤은떠나려가서 업서지고 말엇습니다。 그런지 한달이지낸후의 일입니다

지극한 효성을 알고잇든동리사람이 압시내가에서 큰잉어한마리를 잡어가 늙은아버지 잡수게하라고 처녀에게갓다주엇습니다。

처녀는 깁버하야 그날저녁 맛이잇게 국을끄렷습니다。 그래서 저녁상을 바드신아버지도 깁버하시며 잡수시려하엿는데 그때마침 처마에잇든 제비한마리가 오늘은전보다 더요란스럽게 지저거리고 떠들고 야단이엇습니다。

「이게웬일일까?」

아버지와 딸은제비의하는 짓이수상하엿스나 그대로마음노코 국을떠먹으랴햇습니다 그때 한마리의 제비가방으로 드려오며 아버지가잡수려는 국에다가 똥을깔기고 무어라고 요란스럽게지절대고는 문밧그로 나가버렷습니다。

똥을깔겻스니 그국을 먹을수가잇서야지요 그래서그국은 내버렷습니다。

내버린국을 이웃집개가와서 할터먹엇습니다 먹고가드니 놀나운일입니다 그개는 도라가는길로 금시에죽어버렷습니다 그날밤 동리사람들에게는 큰이야기거리가되고 마럿스며 죽은고양이를 잉어가 먹엇든것까지 제절로 알게되엿습니다 제비때문에 아버지가 살으신 생각을할때 꿈이지 생시인지모를만콤 깁벗스며 더욱더ㅣ그처녀는 제비를 사랑하지안흘수업섯습니다 (쯧)

曆

九月十一日(金)
陰丙子七月廿六日
丙申·火·鬼·閉
●宜裁衣納財安葬에吉함
●秋分 廿三日(陰八月八日)
●寒露 十月八日(陰八月廿三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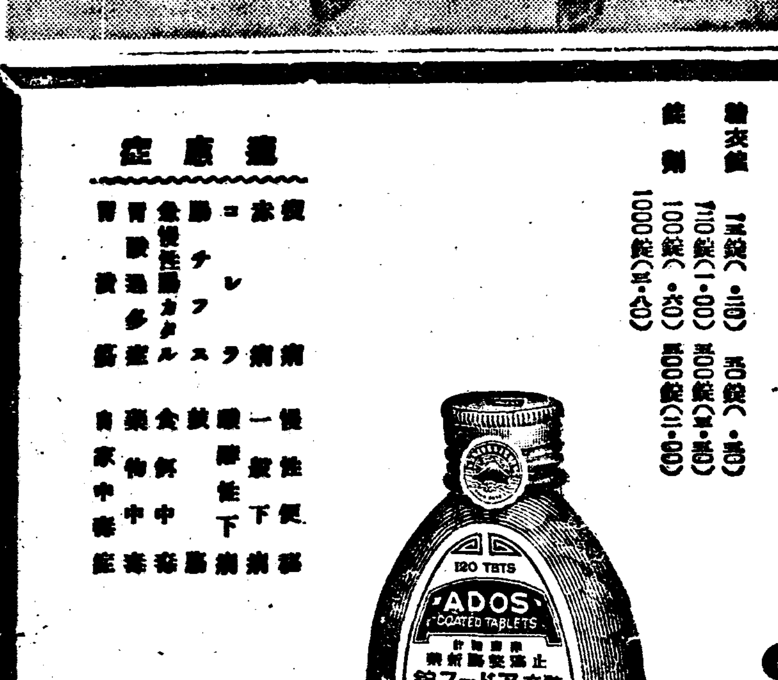
발새에땀나고 냄새나는데

이런약을써보시요

구두를 신으면 발이몰고 더워저서 땀이 만히남으로 그것이 구두속에 배여 그냥단이는대도 땀 내음새가 고리타분하게나며 집안에서 구두를 벗고 잇서도 늘 냄새가 나서 곤난한사람이 잇습니다 이런케되면 이것도 벌서 한가지 병이라고 볼수잇습니다 남의집에 손으로 가던지 자긔집에잇던지 전차안가튼데서라도 납분냄새가 나서는 남에게 호의는그만두고라도 자기신도 불유쾌하기 짝이업슬것입니다 이러한분은 속히 치료해버리지안흐면 점점 더하게되는동시에 나종에는 발에 크게 고장이 나는수가 잇습니다 조산(酢酸)다섯 주석산(酒石酸)열 붕산(硼酸)열 활석(滑石)넷 아연화(亞鉛華)넷 이상과 가튼비례의 약품을 배합하야서 아침저녁으로 한번식 발을 더운물에 잘씻고 그것을발너두면 감쪽가티 나허버리며양말밋바닥이 담북저던 땀도 거처집니다

라디오핸드빽

이것은 모-던껄들이가지고 단이는 최신식「핸드빽」입니다 다 본은비와가티「핸드빽」에 「라듸오·세트」가 장치되여 잇슴으로 전용거닐때나 공원벤취에거러안저서 오십마일저편에잇는 방송국의방송을 정확하게 드를수잇는편리한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론돈에서 대류행중입니다



傳染病

不注意는禁物! 이상타생각되거든 곳アドース錠을

至今이야말로傳染病이流行할季節이다、身體가妙하게 느릿하고食慾이안나고배가 끄록끄록울고、泄瀉가계속되고、大便은粘液質이며때로는血液이석기고頭痛惡寒發熱될時에는一刻이라도주저하여서는안된다。

그무서운疫痢、赤痢、고레라、腸질부사等은以上과가튼症狀으로부터始作된다。

이런때에는그냥두지말고、于先アドース錠을服用하라 アドース錠만服用하면腸內에滯積하엿든有害毒素와、나뿐黴菌을、기치지안코吸取하야無害케하야體外에排出하며體內의消除를함으로써、가장安心하고治療할수잇다。

大體여름은黴菌의繁殖이旺盛하야飮食物이腐敗되기쉬우며또한寢冷으로下痢와腹痛을이르키기쉬움으로豫防과治療에는アドース錠을推奬하는바이다。

糖衣錠 二五錠(·三〇) 五〇錠(·五〇) 一三〇錠(一·〇〇) 三〇〇錠(二·五〇)
錠劑 一〇〇錠(·六〇) 五〇〇錠(二·〇〇) 一〇〇〇錠(三·八〇)

適應症
疫痢 赤痢 コレラ 腸チフス 急慢性腸カタル 胃酸過多症 胃潰瘍
慢性便秘 一般下痢 慢性下痢 鼓腸 食餌中毒 藥物中毒 自家中毒症

アドース錠

(아 도 - 스)

……「夏から秋への衛生」冊子 無代贈呈……

株式會社 藤澤友吉商店 大阪東區道修町·大連市山縣通·奉天加茂町·京城府西小門町

故事拾綴 ❶

慧超의 大旅行

湖岩

우에 日本에서 東京까지 徒步旅行을 敢行하는 『로-렐드』라는 英國靑年이 잇다. 그는 一萬五千『키로』의 里程을 踏破하야 目的地에 到着함에는 실로 三個年中의 긴 歲月을 要하다하니 東西交通이 크게 便利하게된 現代에도 徒步旅行이 이러케 困難하다.

그런데 交通이 열리지못한 一千數百年前에 朝鮮에서 印度까지 徒步旅行을 敢行하야 잇섯다면 그야말로 驚異할일이다.

그러나 한갓 徒步旅行에 成功하엿슬뿐 아니라 그 旅行記인 『往五天竺國傳』은 오늘날 東西交涉史上 아주 貴重한 資料가 되니만큼 一大不朽의 業績을 後世에 남겻다. 그러면 그는 누구이가? 그이가 곳 慧超이니 新羅의 僧侶이다.

慧超는 일직부터 求法에 뜻을 두어 二十歲前에 本國 新羅를 떠나 그때 佛敎興隆의 唐土에 건너갓다가 다시 唐土에서 佛敎發源地인 印度까지 가게 되엇다. 그리하야 佛陀의 聖蹟을 차저 五天을 巡歷한後 또 다시 唐土로 도라오니 때는 곳 開元年間이다.

開元이라면 支那史上 이른바 盛唐의 年號로 누구나 다 알바이니 唐朝文化와 燦爛한 … 唐이 가장 지를 黃金時代이엿다. 藝術에 잇서도 統一後 文化의 隆盛이 거의 絶頂에 達하야 온갓 藝術의 꼿치 燦然히 피든 全盛時代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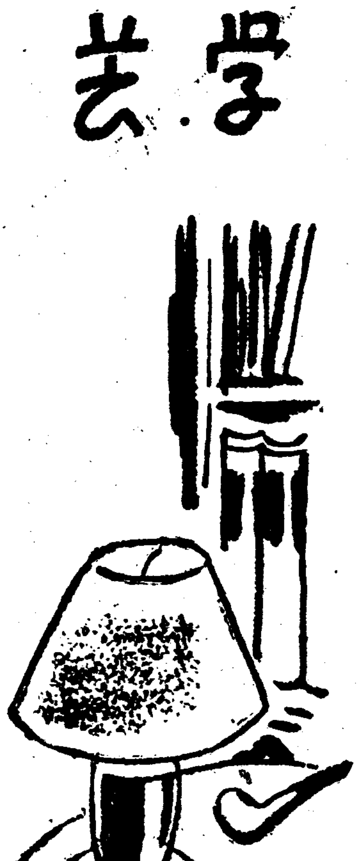
巨人 慧超가 압서지도 안코 뒤서지도 안코 꼭 이때 唐土에 잇게된것은 무슨 까닭이가. 이는 마치 漢武帝때에 張騫이 잇게된것과 또는 元世祖때에 『마르코·폴로』가 잇게된것과 同一한 意味에서 그 時代의 國家的 運命을 象徵한 人物로 볼수잇다.

비록 그 動機에 잇서는 혹은 政治的, 혹은 宗敎的, 또 혹은 … 제각기 다르나 東西交涉史上 直接間接으로 影響을 주엇는데 이르러는 거의 類似한바 잇는것을 發見할것이다. 簡單히 말하면 張騫으로해서 西域事情이 처음 東方에 알려지게 되엇고 이와 反對로 『마르코·폴로』로 해서 東方事情이 비로소 西洋에 알려지게 되엇거니와 慧超로해서 그때 西域事情이 오히려 東方에 明白히 알려지게 되엇다. 慧超以前에도 印度行記가 업는 바 아니나 法顯의 佛國記와 唐玄奘의 西域記가 … 中國名僧의 … 印度旅行記로 … 한다.

그러나 종래 慧超의 事蹟은 學者들의 … 法顯의 佛國記보다는 압서고 玄奘의 西域記에 다음가는 名著라고 한다. 大谷勝眞은 … 이 慧超의 旅行記를 … 보다 … 다 하엿다.

우리는 이 慧超의 旅行記가 … 한번 알어볼 必要가잇다.

學藝



語原考證數題

『古語에 남은 現代的意味』 ❶

梁柱東

朝鮮語文獻, 特히 古諺解書를 읽는中에 가다가 아지못하는 古語를 배우는것은 매우 愉快한 일이거니와, 特히 滋味잇는것은 古語에 依하여서 現代語의 語義를 알게되는것이다. 알고보면 아조 平凡한 쉬운말도 古語를 아지못하엿기 때문에 그 語源을 모른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흔히 文獻을 뒤지면서 筆記하여두엇든 묵은 노-트中에서 通俗的으로 興味잇는 若干의 材料를 눈에 뜨이는대로 解說하여본것이 다음의 數則이다.

갓(妻)

아흡서령• (重操順母條)

『妻』의 訓으로서는 여러가지가 잇스나, 通稱『안해』라함은 『안해人사람』(內人)의 略語요 古訓은 『갓』이엇다.

妻는 가시라 (月印一·十二葉)

이古訓을 몰랏기 때문에 古來로 『가시아버지』『가시어머니』(丈人, 丈母), 『가신애』(계집애의 慶尙道方言)等語에 對하야 여러가지 臆說이 생겻섯다. 卽 가시아비를 『假侍父』라 解釋하는 漢學者流도 잇섯고, 심지어 『가신애』를 『假男兒』『假寺內』에 擬하는 曲學도 잇섯다. 寺內란 寺人(宦官)內侍를 云謂함이다.

『妻』의 古訓이 『갓』이므로 『가시아버지』란 單純한 『妻父』의 義요, 『가신애』는 맛치 『겨집애』와 同一한 構成語로 『가시애』에 音便上 ㄴ이 添入된것이니 直譯하면 『妻兒』니 未婚女, 卽 處女의 義다.

한가지 또 興味잇는것은 『갓』이란 말이 『妻』의 義로부터 夫婦의 義로 轉한것이다. 지금도 … 地方語에는 … 『갓』이라고한다. 흔히 … 家 …

각시

(朝鮮館譯語)(三綱行實女烈圖)

이윽고 가시 다 자괴나거늘

婦人을 閣氏라 쓰니 어린 妻에만 쓰이는것은 아니오 『少婦』, 『新婦』의 뜻으로 쓰엿다. 衣服에 … 다시 … 머니를 이바다며

(朝鮮館譯語) (業羊子妻條)

靑衣는 파란옷니븐 각시라 (月印一·四十三葉) 『각시』는 近世에 『閣氏』라고쓰나 그것은 毋論借字에 不過한것이오 그原義는 不明하다. 『氏』字의 訓이 『각시』 … 字에 … 會(其他)입은 무엇일까. 或은 무슨 關聯이잇는지도 모르나 後考를 기다린다.

마노라

또 近世에 妻의 別稱 或은 敬稱으로 『마노라』란 말이 잇스니 흔히 『抹樓下』라고 쓰기때문에 『마루』라는 말과 關聯시켜 說明하는이가 잇스나 牽强之說에 不過하다.

『마노라』란 말은 女人에게만 쓰는말이 아니오 當初에는 아랫사람이 웃사람에게 向하야 말할때에 쓰는말이엿다. 左의 例는 그確證이어니와 그것이 어찌하야 婦人에게만 쓰이게 되엿는지는 不明하다.

제종이 도뎔오뒤 마노라부뢰 뵐ᄅᆞ시니 (其後 本宮 … 秋高) 『若水効死條』

이것은 宋吏部侍郞 李若水의 종이 그 上典에게 向하야 하는말이다.

살(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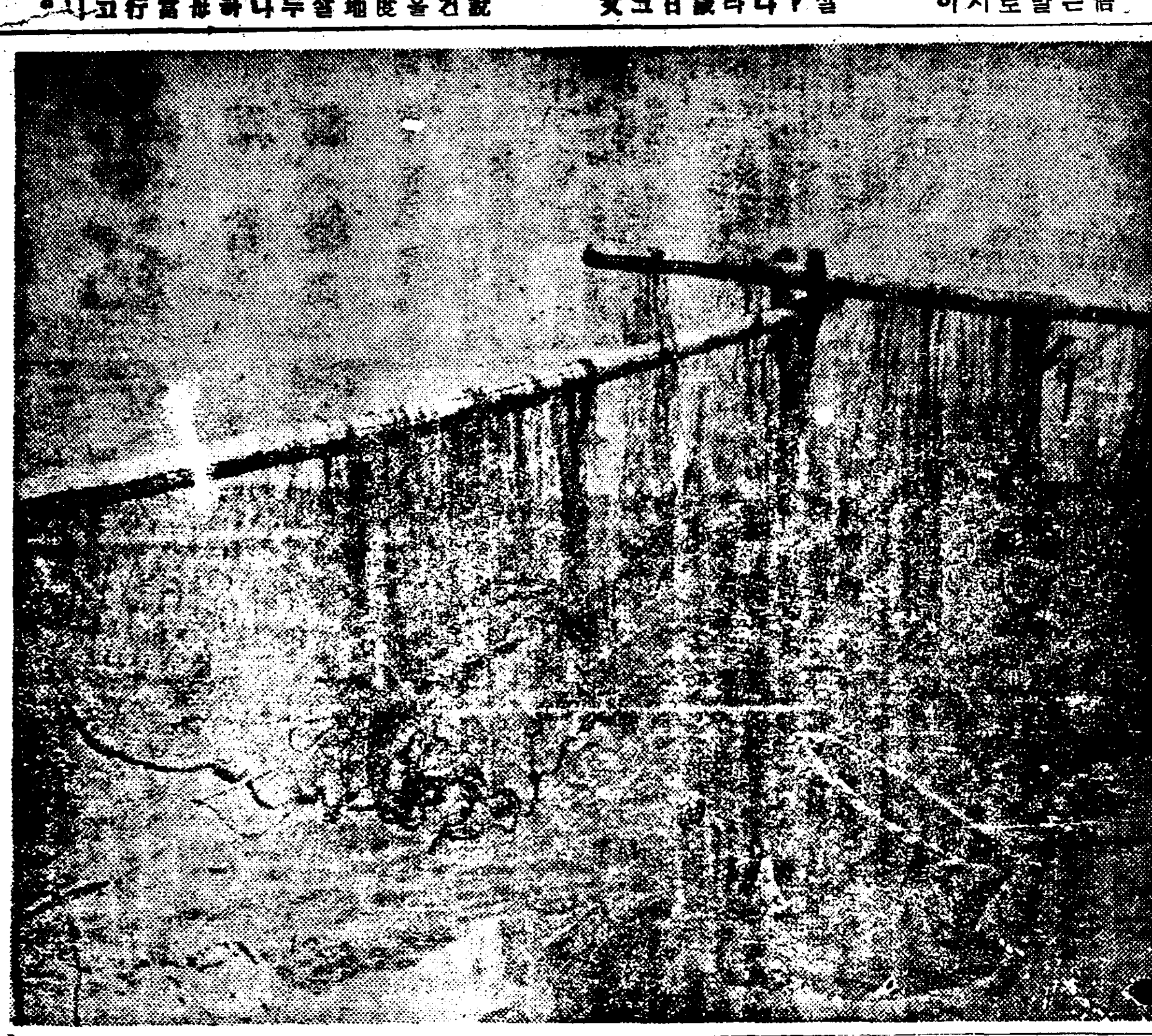
西山語錄에 『學語輩, 說時似悟, 對境轉迷』란 一句가잇다. 이는 大師가 口頭禪을 喝破한 말이어니와 이 一文은 글자대로 말을 배우는中에서 順序업시 적은것이니 『學語輩記』라함이 맛당할것이다.

나히를 헤일때에 한살 두살하는 『살』의 語義는 무엇인가? 이말의 語源에 對하야는 나는 진작부터 『설』의 轉音이라고 생각하여왓다. 歲首나 換歲를 가리처 『설쇤다』하고 元日을 『설날』이라하는 지금도 그대로 남어잇는 말이어니와 文獻에도 종종 뵈가잇다.

娑至無 서리어든 (三綱行實孝子圖)

그런데 畏友 孫晋泰氏는 異說을 主張한다. 그의說에 依하건대, 우리方言에 牛馬의 年齡을 헤일때 해마다 새풀(草)먹은度數에 依하야 한풀·두풀하는 地方이 잇스므로 미루어보아 한살·두살의 語源은 한쌀(米)·두쌀이라 하는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모래도 氏의 說을 首肯하기 어렵다. 『살』은 『설』의 轉音으로 보든것이 當然한것이다. 더구나 實例를 『三綱行實』에는 『설』이라 적혓고 … 『살』 … 이다.

세설머근 손ᄌᆞ를 머기더니 (三綱行實孝子圖)



漁村

中國古代劇의 斷片的考察

❷ 金友琴

以上種類의 活動的目的은 生存競爭과 함께 密接한 關係가 잇서서 그들은 生活慾望하는 同時 『神權』의 統制下에 잇서서 不得不 各種神主에 向하야 祭祀的儀式으로써 生活安全을 祈求하엿다. 祭이란 普通으로 解釋하면 報恩的 意思로 그 祭禮는 三種으로 分하엿나니 同篇에 曰

『祭有祈焉, 有報焉, 有由辟焉』

이라하야 所謂 祈란 要求的 意思로 周禮에 說明한바

『祈福祥, 求永貞, 祈年於田祖』

라하엿고 또 詩經에 曰 『春夏祈穀』이란 文句가 다 祈를 말함이다. 報는 酬을 어든 對價的報答이니, 故로 祭禮는 報本的 意思가 만타.

由辟이란 災兵과 病疾을 消弭하는 意思로 말할수잇는만큼 祭란 實로 萬能의 이라하야 人生生活問題의 一切를 解決한다는것이다. 어바게도 祭地 곳 祭神時에 歌舞地點에 關하야 論述하면 禮記郊特牲篇에 曰

『祭天掃地而祭焉』

이라하야 希臘劇場建築에 比較하면 너머나 簡單하고 便利하나 그時代의 物質的 文明과 經濟的條件이 不許하야 그以上 特殊한 建築物이 廣場에 出現되지못하엿다. 그러나 中國歷史上 現在北平의 天壇, 地壇, 先農壇等가튼 祭祀의 遺跡으로 보아 率直히 말하면 가장 完整한 祭堂 곳 一種의 野外的 劇場의 舞臺이다. 다시 그例를 들면 現在 遼古地方에서 流行되는 土大舞은 平地上에 顯圓한 線內에서 演戲興神의 興行이잇다. 그러나 地點은 廟門外庭인것을 記憶해야 된다.

樂工舞師

舞란 動作表情이 基礎이며 歌란 聲音表情을 基礎로 삼는다. 樂記에 曰

『詩, 言其志也. 歌, 咏其聲也. 舞, 動其容也』

이라한것을보면 詩도 一個劇本의 雛像이다. 三百篇詩文은 本是里巷의 歌謠이며 朝廟의 樂章으로 太半이나 歌에 屬한다.

樂도는 歌舞란 一種音調의 化合이니 樂記에 記錄하얏스되

『凡音之起, 由人心生也. 人心之動, 物使之然也. 感於物而動, 故形於聲. 聲相應, 故生變, 變成方謂之音. 比音而樂之, 及干戚羽旄謂之樂』

이라하엿나니 樂이란 非但聲音을 發하는것뿐만아니라 舞의表演을 意味하야 干戚羽旄에 及하기까지 歌와舞가 互相間符合함으로써 樂이라할수잇다. 따라서 謂 樂의 起源을 認識하는 同時 歌舞的戲劇에 對한 分別을 어떤 樣式으로하랴?

歌舞에 關한 記錄은 現在五經中에 相當히 記載가만타. 이것을 比較하기前 虞書益稷篇을 參考하면

『戛擊鳴球, 搏拊琴瑟以詠, 祖考來格, 虞賓在位, 群后德讓. 下管鼗鼓, 合止柷敔, 笙鏞以間, 鳥獸蹌蹌, 簫韶九成, 鳳皇來儀』

라하야 이것을 舜時代의 事蹟으로 堂上堂下의 樂舞이다. 곳 堂上은 以詠하고 堂下는 以間으로 呼應하야 演奏하얏슴을 推測할수잇다. 鳥獸蹌蹌은 古人의 說에

『不獨感神人, 至於鳥獸無知, 亦且相率而舞』

라하얏고 또 俗에 『舜和, 豈眞有鳥獸蹌蹌而來儀者乎』라하야 當然히 考究하면 그時代 社會背景이 狩獵時代에 잇서 사람들은 鳥獸의 羽皮를 衣하고 鳥獸의 動作을 模倣하야 上下함께 歡樂하얏던것이 合理的이엿다.

다음 農業時代에 至하야 祭神의 儀式이 比較的 發展되고도 한 生存競爭的 武器가 比較的 完備되고 五色繪의 祭神의 美術도 생겻다.

이로보아 모든 進化過程에서 戲劇活動도 一新한 氣象을 뵈게되엿다.

周禮春官을 보면

『凡祭祀百物之神, 鼓兵舞帗舞者』

라하얏스며 또

『有帗舞, 有羽舞, 有皇舞, 有旄舞, 有干舞, 有人舞』

의 別이잇서 果然 그 舞風의 盛況과 舞의 種類가 多樣함을 알수잇슬뿐아니라 國家에서 舞師를 設置하야 專門的으로 이方面의 藝術에 關한 一切公務를 掌管케 하엿다.

舞師篇中에 말하엿스되

『掌敎兵舞, 帥而舞山川之祭祀. 敎帗舞, 帥而舞社稷之祭祀. 敎羽舞, 帥而舞四方之祭祀. 敎皇舞, 帥而舞旱暵之事. 凡野舞則皆敎之』

라 하엿다.

漢詩募集

題……白頭山

押……峯

限 九月末日

(薄謝進呈)

白頭山探險의 科學的成果

白頭山에잇는 昆蟲의分布狀態

❷ 金秉河

下草群落으로 드리가 美花를 가진 일홈모를 草林이 密生되어잇는것이다. 筆者는 植物에 關하야는 門外漢이기에 略하거니와 白頭山植物로서 가장 아름답고 常識的으로 알아들만한것으로는 朝鮮岩菊, 西北利亞野菊, 山蓍草, 蝦夷蓍草, 紫菀, 女菀, 朝鮮桔梗, 蝦夷脊高菊, 矢之根罌粟, 朝鮮山蘘, 唐菊, 深山東菊, 與山北古百, 豆柳, 目木柳, 常磐玄海躑躅, 雲間躑躅, 森撫子, 高嶺撫子, 紅花鹿蹄草, 一花鹿蹄草, 雲間龍膽, 深山晩美人草, 椈內草, 大戟柴胡, 君小出發, 亡髮草, 坐宜草, 車百合, 松葉百合, 立沙蔘, 銀沙蔘, 夢駒草, 蔓蔘, 香木, 鍾唇等은 드러말할수잇다.

白頭山產의 昆虫에 잇서서 보드래도 昆虫도 植物과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잇스니만큼 比較的 山體의 廣大함에 比하야 少數라고 볼수잇다.

密林地帶에는 陰地로서 他植物은 生長키 不能하니만큼 昆虫은 무엇보다 植物이 豐富하여야만 거긔에 따라 昆虫의 數도 어지간히 만허지는것을 우리 普通常識으로써 알수잇는 事實이다.

白頭山의 昆蟲을 細密히 調査하자면 五月부터 八月末까지 採集하지안코는 到底히 不可能한일이다. 다만 六, 七日間에 日 七, 八十里式 全速步로 進行하며 或 눈에 보히는것만 採集하게되니 이야말로 『수박겉핥기』格으로 따라서 步行하면서도 全部 살필수잇다면 또한 다시 조흐리라 밋지만 白頭山은 登山路가 險하야 (一百尺以上되는 巨木이 쓰러저잇고 農事洞에서 武峰까지 沼澤으로서 조금만 不注意하면 바지이나되는 물구렁텅이에 가 럼석 빠지는 故로 이附近에서는 採集보다 구렁에 빠질것을 살피게되고 마침 農事洞에서 武峰으로 向할때에는 終日 비가 내려퍼부어 자못 昆虫採集에는 成績이 不良하엿다.

武峰以上으로 無頭峰까지 無頭峰에서 胞胎里까지 森林地帶이니만큼 그리고 每日 步行里數가 七八十里 平均六時間에 出발하야 速步로 가지안코면 그날 目的地到着이 느저짐으로 쉬는것보담도 가는것이 目的이니 動植物을 採取하는때는 여간 不便을 주지안는것이다.

따라서 昆蟲을 採集하라고 虛空을 바라보고 가다가는 얼크러진 木根에 걸리어 秋風落葉가티 쓰러지고 多幸으로 넘어지지는 안는다 하드래도 발끗트로 나무뿌리를 거더차서 그 발고락의 痛疼이라니 白頭山登山者가 아니고는 平生에 맛볼수업는 그야말로 기맥힌 맛이라 할수가잇다. 萬一 한 마리 網으로 잡앗다고하면 三角紙에나 … 其他 … 하는 동안에 一行은 나는업서지거나 馬賊에게 붓들여가거나 猛獸의 食物이되거나 一二間에서 가면 密林地帶이니 압페가는 一行을 볼수업슬뿐더러 엽헤서 버스럭만하여도 머리끗이 웃속하야 한숨에 뛰어 따라가다 숨차서 採集할수업고 압페 一行이 行進하는 바람에 昆虫들은 大概 三十六計를 하는것이 … 눈에 띄우지안흘것이다.

그럼으로 一行과 거리 잡수잇고 昆虫도 採集하기전에 採集하라면은 第一先行隊員을 따르게되어야만하겟는데 그도허구 … 잡아 더흔 동안이면 벌서 第一末行으로 뒤떠러지는것이니 白頭山登山中 採集을 目的한者만은 남보다 倍以上의 努力을 들여야되고 다리힘을 빼야만 되는것이다.

警備隊에서 … 四十五分間進行하고 十五分間休息할것이니 休息時間을 利用하야 動植物採取를 하여도 充分히 할수잇다고하지만 事實同一한 步調로 갓다하여도 남은 다리쉬는데 自己만이 … 昆虫이란 休息에 몰리어잇는것도 아니니 休息할때에는 自己도 몸을 쉬게하여야할 … 것이다.

그러다가도 採集하노라고 제일뒤에 떠러지오다가 압一行이 休息하고잇는곳을 到着하고보면 여기서 더반가운게업고 조금쉬라고할때 벌서 出發準備하는때다. 이러할때마다 …

이와가튼 여러가지 事情으로 白頭山에서 昆虫을 採集하는데는 實로 適當치안코 또 … 압으로 進行할길이 漠然스러워지는것이 昆虫採集者의 쓰라린 運命이라고하겟다.

白頭山에서 昆虫을 採集하는데는 眼目에 얼른우는 … 것이 … 白頭山에잇서는 … 만흠으로 이것을 잡는것이 重要目的이오 따라서 第一着眼點이라고하겟다.

白頭山이라하면은 普通으로 생각하기 쉬운것은 朝鮮에잇서 第一高山이오 無人境으로서 森林이 茂盛하니 全部가 平地에서 보지못한 昆虫이 떠껄리엇스리라 하겟지만 事實에잇서서는 全然 그러하지 안코 普通 平地에서 볼수잇는 普通 昆虫들이고 그中에서 大部分이 普通平地에서 … 不過몇種類가 普通山野에서 보지못하든 昆虫이라하겟다. 이번에 大多數가 採取한것이 平地에서 흔히 볼수잇는 昆虫들이니 이것에 對한 이야기나 끄내어보기로한다.

文學同好會

大邱서創立

大邱에서는 李相和, 李孝祥, 徐龍基, 具滋均, 尹福鎭氏等이 中心이되여 지난 五日 群芳閣에서 大邱文學同好會를 組織하얏다는데 同日出席者는 十餘名이엿고 事務所는 大邱府京町 一丁目二十六番地에 두엇다한다

讀者社交室

▲社交室을 보시는 讀者諸氏中 一, 女の友 (昭和十一年一月より) 一, 女の友情上下 一, 月よりの使者를 가지셔서 讓渡하실 意向이 계시면 冊名과 價格을 社交室로 알려주시면 買受하겟습니다 (貴下의 住所도 發表하여주시요)

金泉 一女性讀者

▲平南草鄕祚兄이여 近況이 그립습니다 月前 京釜線列車속에서 주신 편지 感謝이 입니다. 其後는 어데서 活動을 繼續하십니까 生의 苦海를 爲하여 努力하신 兄의 身勢 可憐도 합니다 東馳西走에 健康도 무던이 傷하셧을것입니다 그러나 人生은 苦海라? 人能奈何리요 힘세인 半島勇士가 아닙니까 百折不屈하는 鞏固한 決心下에 꾸준이 싸와주시옵소서 日月이 不久에 所望의 月桂冠이 當到할것입니다 兄의 居處를 未知하와 本社交室을 通하여 뭇자오니 幸여나 天祐神助하시와 大笑歸鄕하시기 만?

平北楊市 文舍仲

▲社交室을 通하야 求婚합니다 本人은 二十四歲로 沈着한 性格을 가진 … 者로서 某會社 社員이며 그리 餘裕는 … 新婦는 全體的으로 보다 部分的으로 … 性格으로 … 男便이 外科醫師라면 … 普通學校以上 … 이 … 利用하야 주십시요

城北町二一〇 金永錫

▲滿天下諸氏의 健康을 비옵니다. 여러분中 "Present-Day English Readers" 1卷부터 三卷까지의 웃 後面의 單語集 (The Word List)만을 모아 下付하시면 千萬感謝하겟습니다 적으나마 薄謝를 드리겟습니다

平南平原郡順安面新上里 全仁基

▲朝鮮日報第五四五三號 (七月二十四日付) 讀者社交室懸賞生의 左記書籍을 買受하고자하오니 其讓渡코자하는분은 價格과 責任所를 左記住所로 通知하야주심을 要함

記

一, 臨床藥理學 二, 新撰解剖學 三, 近世病理解剖學 四, 生理學

忠南唐津郡合德面雲山里 金[illegible]

▲무심하여나가신 兄님에게 兄님과 作別하온지 七個星霜에 客地에서 얼마나 苦生되십니까 … 어머님께서도 兄님을 기다리오니 이글보시는대로 곳 住所를 알려주서요 …

弟의 親友인 宋在潤氏는 今年二十一歲이온데 七年前에 집을 떠나서 東京方面에 … 아시는분이 게시거든 社交室을 通하야 알려주시면 大端 감사하겟나이다

忠南公州邑本町一四七 宋[illegible] 白

新刊紹介

▲朝鮮農會新報 第十卷九號 發行所 京城府黃金町二丁目 朝鮮農會 振替京城一二〇三番 定價一部 六錢

▲東亞商工新報 第一二三號 發行所 京城府貫鐵町一二八 京城商工奬勵會 振替京城一二二一二番 定價五錢

絢爛한 天分의 爭覇戰

第2回 全朝鮮音樂懸賞競演會

期日 決選十月二十四日, 豫選十月廿一日, 申請十月十五日까지

曲目 二曲을 演奏하되 一曲은 本社指定. 一曲을 取하고 一曲은 隨意로함

【聲樂】 一, 蓮花(女)「슈―만」 一, 남은 나의 安息(男)「슈벨트」

【피아노】 一, 「소나타」(F長調)―第一樂章―「모찰트」

【바이올린】 一, 「콘첼토」(G長調)―第一樂章―「비오티」

參加資格 朝鮮男女로하되 聲樂은 滿十五歲以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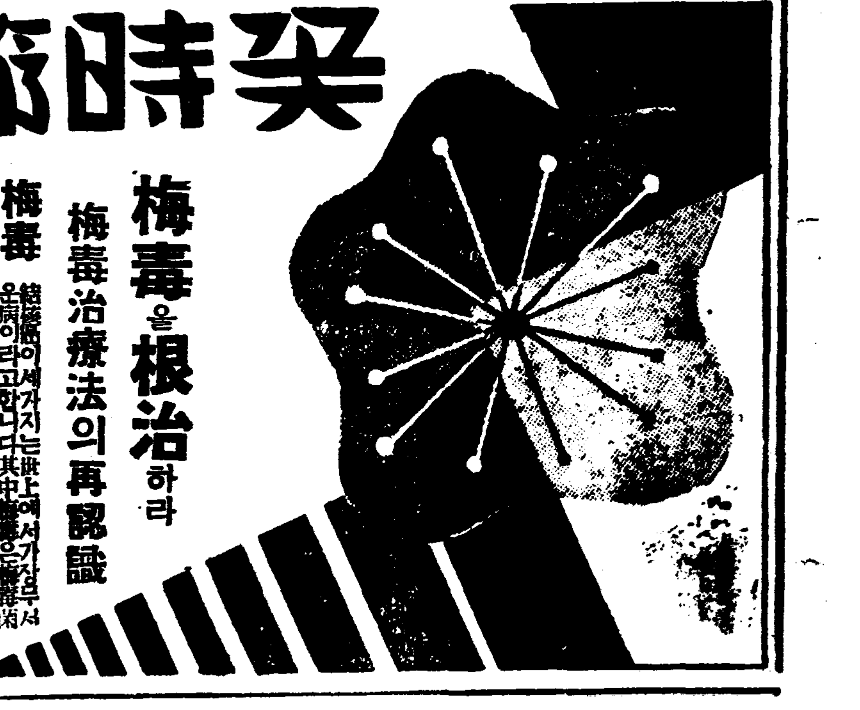
申請規定 申請金 貳圓과 伴奏料 壹圓을 申請書와함께 本社庶務部로 提出하되 樂譜는 五十錢에 提供함 (但 한번 申請한뒤에는 一切 申請金을 返還치아니함)

表彰 入賞된분에게는 本社로부터 풍후賞金을 授與함

審査委員 金永煥, 洪蘭坡, 朴慶浩, 桂貞植, 蔡東鮮, 金元福, 鄭勳謨 (無順)

主催 朝鮮日報社

꽃時節에 오는 癈物



梅毒을 根治하라

梅毒治療法의 再認識

梅毒 …

그러나 …

梅毒은 根治된다

內服 …

毒掃丸適應症

初期梅毒 … 天疱瘡 … 潛伏梅毒 …

藥價 重症用毒掃丸 二圓, 三圓, 五圓, 十圓, 二十圓, 三十圓

普通毒掃丸 三圓, 五圓, 一圓, 十二圓

小兒用毒掃丸 三十錢, 五十錢, 一圓

(全國有名藥店에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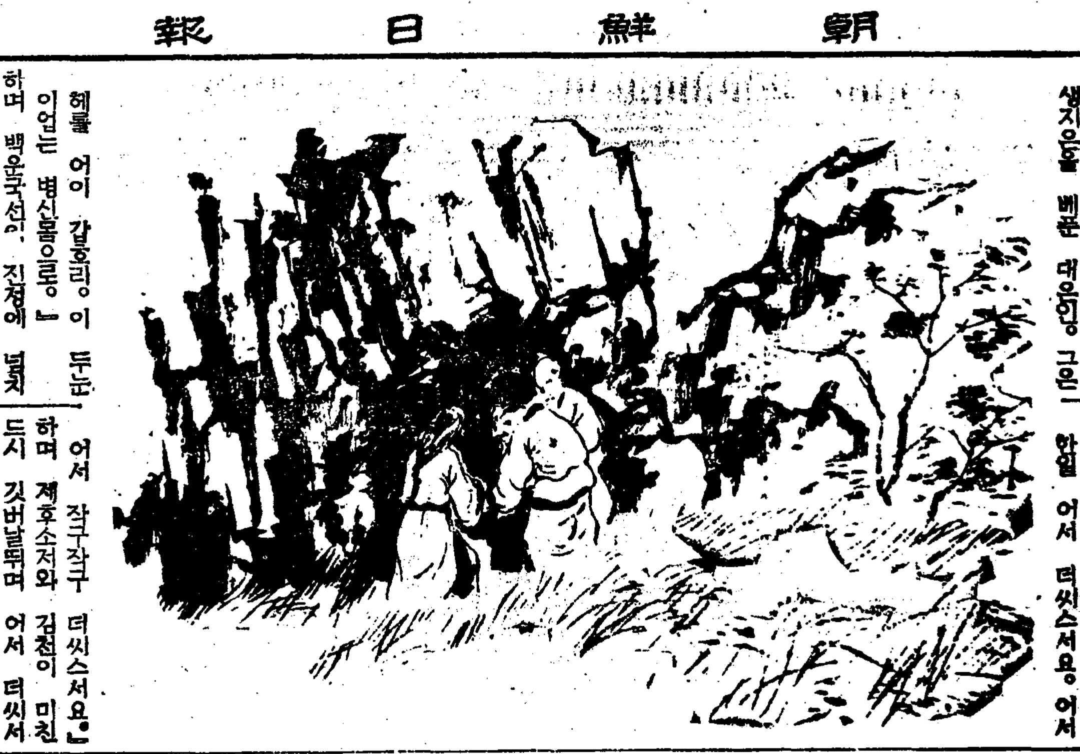
株式會社 山崎帝國堂 東京市神田區花房町 振替東京一四六七番

毒掃丸

連載野談 (三)

布袋記

申鼎言 作 / 金龍超 畫



신의잇는편에 (二)

백운국선이 정신을 차린뒤에 제후소저와 김천이 차례로 지난일을 이야기할새 말하는 제후소저와 김천의 음성도 목메인소리요 그말을 묻고 대귀하는 백운국선의 음성도 역시목메인 소리엿다。

백운국선이 제후소저와 김천의 말을 다드른뒤에 다시 김천의 손을 잡고

『허허。인연도 괴이한 인연이지。금오산(金鰲山) 길놉한 산길에서 우리 두몸이 만나게 되것이 분명 그래가 나중 이려고 만난것이 아니오 오늘 이산중에서 이몸과 제후소저의 죽엄을 구원하라고만난것 아아。김천!。김천!。김천은 이몸과 제후소저의재생지은을 베픈 대은인。그은혜를 어이 갑흐리。이 두눈이업는 병신몸으로。』

하며 백운국선이 진정에 넘치는 눈물을 흘릴새 제후소저도 것데 안저서 늣겨운다。

『서방님!。국선서방님!。이몸은 서방님과 소저께 아무은혜를 바친것이업는몸。일직금오산에서 서방님을 뫼시고공한 뜻으로 그밤길을 것는인연이 엇것는를 이몸은 영영 고이한 몸으로써 떠돌다가 어느날 어느때에 무슨 모진죽엄을 하얏슬넌지 모르는몸。그러커늘 그 최악의 광릉벗고 량민이되려는 뉘우침을 크게 깨친것은 온전히 국선 서방님의 큰은혜。』

하며 김천도 예일을 생각하면서 늣겨 울엇다。

그런데 백운국선은 그이상한 물을 먹고 다시 깨어낫슬뿐만아니라 두눈알이 이상한것을늣기엿다。

『자!。이상도하지 이상도해。저물로 내눈을 씻슨뒤 눈알이 묵시나 개려우니 이것어 무슨 징조일고。멀녀야 떠할것은 분명 업슬것。』

하며 눈앞에 이상한 징조가잇는것을 말하엿다。

『아앙 천지신명이 도으심 어물로하야금 귀진이된것이어 회생하신것처럼 이물로 두눈도 다시 밝거질 징조이지 어찌 아오리。』

하며 제후소저와 김천이 다가터 크게 바라는 마음으로써 그물에 눈을 매쏫서 보기를 편하엿다。

그리고 김천이 백운국선을그후가로로 인도하야 안치엿다。

백운국선이 그 후가에 안저서 작구、작구 물을 손으로쥐어서 두눈을 번갈러 씻섯다。

백운국선이 이럿듯 얼마동안 물을 손으로 떠서 지셧것 씻다가

『자!。이제이징 별일이여!。내눈에 이물건이 보이는것가 돈다!。내마음으로 그러케 생각이되나 어찌된 일일공 내눈앞이 이찌되엿나 봐!。』

하며 백운국선이 두눈을 크게 떠 보이엿다。

『아이고 뼈대가 모두 버서지는듯。거문자위의 흔적이 완연히 보이는듯 아이고 신긔한일 어서 더씻스서요。어서 어서 작구작구 더씻스서요。』

하며 제후소저와 김천이 미친드시 깃버날뛰며 어서 더씻서 보기를 권하얏다。

『참으로 이산 신령님의 도으심이 게신겐가。』

하며 백운국선도 묵시나 밝갑고 신긔한 마음으로써 두손으로 그 물을 옮겨쥐어 두눈을 훨새가엽시 씻섯다。

제후소저와 김천도 반갑고신긔한 생각으로써 그물을 옮겨쥐어 백운국선이 씻는우에다가 또한 물을 떠려드리엿다。

『아이고 물고이는 자리가 훨신 넓고 기펏스면 오직이나 조흐리。이 신긔한 물이。』

하며 제후소저는 그물고이는자리가 좁고 야터서 한번만 손으로 떠내도 바닥이 글키는것을 안타까웁게 생각하얏다。

『글세 말슴이지요。물줄기가이 큰 바위틈이어니 떠 넓히내야 넓힐수나 잇서야지!』

하며 김천도 고개를 숙여 물이 나오는 구멍을 드려다 보면서 탄식하얏다。

『아니야 아니야 어둠이 이리케 나오는것이 모두 정연으로 마련된것。조흐이 흥하이 아니냐!』

하며 백운국선은 그물이 그레케 귀하게 나옴으로써 어하사 물을 살니는 세이수(洗眼水)인듯이 말하얏다。

『참!。참!。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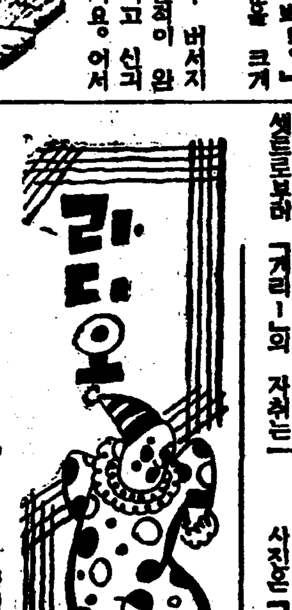
그물은 작구 쥐어내사록 그만큼은 여전히 흘러 고이다。

五百萬弗의 큰訴訟

쿠파를애워싸고

「거리!·쿠-떠-」의 [illegible] 라하면 조금 무엇하나 [illegible] 그사람보다도 [illegible] 四百萬弗이다 (그러라하야 [illegible] 그를 [illegible]하라는것은 아니다) 左右間 「將軍은 새벽에 죽엇다」의 다음作品 「平原의快男子」를 「세실·B·데밀」監督 및 [illegible] 撮影을 始作한 [illegible] 해 [illegible] 그의마음을 [illegible] 사진은「거리-쿠-떠-」

이것이 [illegible] 「쿠-버-」는 그만 「서부극 골드윈」에게 [illegible] 四百萬弗이 [illegible] 二十五萬弗로보아 그외代價는 어도 十六本以上 即四百萬弗以上의時價가잇다고한다 그리하야 그의人氣는 적어도 아프로五個年間은 계속이다고한다 그러면「쿠-떠-」는 무엇때문에지금까지 [illegible] 잇는파社를 떠나서 「골드윈」으로 가게되엿슬가 그것은 自己의 出身 [illegible] 하니「쿠-떠-」는 [illegible] 沈默을 지키고 잇서서 [illegible] 사진은「거리-쿠-떠-」



十日(木曜)

◇午後六時 兒童劇『고기잡이간 아버지』全一景 配役 玉順…金玉姬 小女一…廉昌方 小女二…鷄金干 玉順의어머니…劉信香 玉順의아버지…金楨偶 京城放送兒童劇硏究會 指揮 南雲 伴奏 劉永愛 效果 柳利景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 外來語와消化問題 中央高普 卞榮泰

◇同七時三〇分 講演 指定古蹟에對하야 崔南善

◇同八時 平壤念佛外 一、平壤念佛 二、자진念佛 三、寧邊歌 四、開城難逢歌 五、방아타령 李眞鳳 金玉葉

◇同八時二五分 唱劇調 一、短歌─老人歌 二、唱劇調─赤壁歌 金玉葉 鼓手 韓成俊 方應敎

◇同八時五〇分 名曲鑑賞(레코드演奏) 빠이올린과피아노스프링소나타作品二四…베-토-벤作曲 解說朝鮮音樂家協會 安瑩敎

第一放送

◇午後六時(東) 이야기 郵便切手 村岡花子

◇同六時二五分(東) 講話 孔子生涯 心田開發

◇同七時三〇分(大) 講演과實驗 바람소리 本多龍成 小谷覺之助

◇同八時(大) 人形淨瑠璃 四橫子樂座서中繼

◇同八時五五分(東) 시네마오페렛타 바이올린 쫀·마시아 피아노 폴란스셀빠

十一日(金曜)

◇午後〇時五分 伽倻琴散調와倂唱 一、散調 가、진양조 나、중보리 다、자진보리 二、倂唱 라、短歌 楚漢歌 마、唱劇調 륵기화상 鼓手 丁元燮 趙永學

◇同一時一五分 常識講演 가을엔 웨食慾이생기나 朴容駿

◇同六時 吹奏樂 中東學校樂隊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科學講演 宇宙의神秘性(스펙트럼) 沈亨弼

◇同七時三〇分 講演『自己生活과絶對責任』 李克魯

◇同八時(東) 宮內樂 絃樂四

◇同七時〇〇分 뉴-스·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週間時事『噴火口上에잇는歐洲政局』 同盟通信社 邊成烈

◇同八時〇〇分 새타령 一、報念 二、새타령 三、六字백이 四、興打令 金嫌守 吳翡翠 愼淑

◇同八時三十分 漫談 〃九死一生〃 黃材景

◇同九時 歌曲 一、羽調二數大葉 二、羽調頭擧 三、半葉 四、編 崔明珠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東) 英語會話講座(二ノ七) 피아·해드만

◇同一〇時三〇分(大) 美容講座(四) 谷川

◇午後零時五分 管絃樂 DK오케스트라

◇同二時 常識講座 朴容駿

◇同六時 童話劇

◇同六時二五(仙) 講演 岡澤

◇同七時三〇分(東) 講演 永田秀次郎

◇同八時(大) 宮內樂

◇同八時二〇(東) 모기레프스키外

◇同八時五〇分(福) 竹曲 桂小文治

◇同九時(東) 長唄 吉住小三郎

十二日(土曜)

◇午後〇時〇五分 俗曲 一、三絃도드리 二、打令 三、吹打 四、길軍樂 五、염불타령 六、淸風明月 七、자진념불가 細笛 姜鶴洙 大笒 李忠善 奚琴 金寧業 杖鼓 金仁昊

◇同六時 橫笛獨奏 一、소뚱글이 二、가을밤 三、雨中의달 四、아침 五、모래山 六、물새 七、카나리아 八、喜스위-트홈 鄭德潤

피아노獨奏 金吉洪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乃木大將을 追慕하야』 感化公普 安寅奎

◇同七時〇〇分 뉴-스·天氣豫報 職業紹介

◇同七時三〇分 週間時事『噴火口上에잇는歐洲政局』

[illegible] 作品四一第一番A短調 介-망作曲 第一樂章 인트로데지오-네、안단떼、에스프레시보알레그로 第二樂章 스케르쓰、프레스토 第三樂章 아다지오 第四樂章 프레스토

◇同八時二五分 古典音樂鑑賞 모기레프스키-피아노獨奏

◇同九時 錦山歌外 一、錦山歌 二、南山歌 三、달거리 四、二十四番花歌 져비가 金綠珠 鄭牧丹

第一放送

◇午前六時三十分(東) 洋琴 安 大笒 金 杖鼓 金

◇午後〇時五分(東) 이야기

◇同六時(東) 京城放送兒童劇硏究會

◇同六時二十五分 講演 正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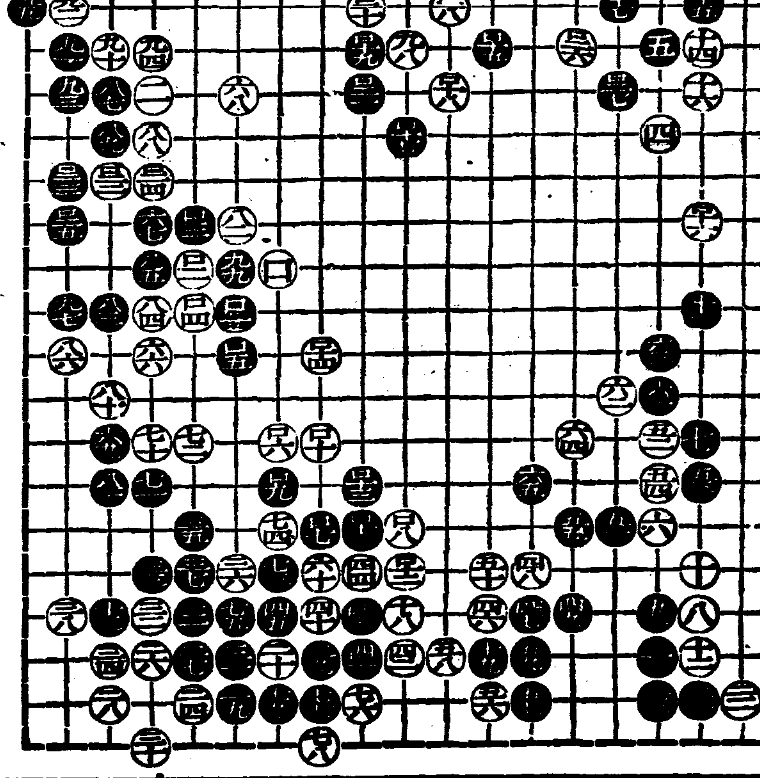
◇同七時三十分(東) 歌舞伎座서中繼

◇同八時三十分(東) 上野

◇同九時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8—

白 尹周燮 / 黑先 柳鎭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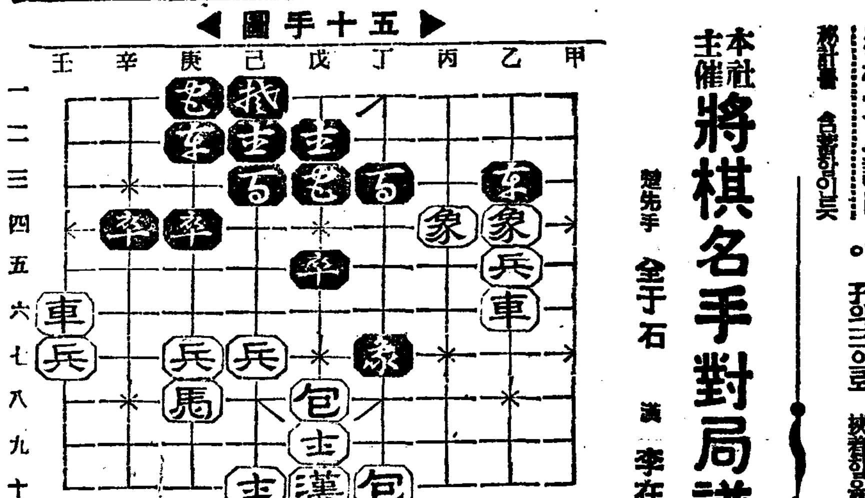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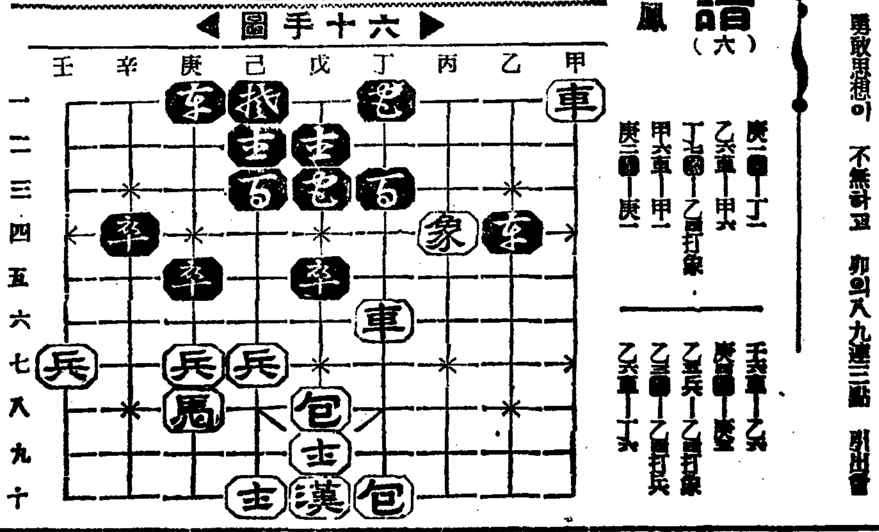
●子의十三 ○丑의十 ●辛의三 ○丙의七 ●癸의五 ○壬의四 ●子의三 ○子의二 ●子의三 ○午의四 ●未의大 ●巳의大 ○未의七 ○己의三 ●戊의四 ○壬의二

紫極文氏評曰 黑先의五 對應에는 白이 卯의六으로 挾擊함을 [illegible] 子의三○로 [illegible] 勇敢思想이 不無하고 卯의八九點三點 [illegible] 强과 白子의四를 [illegible] 形出됨 合意함이天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六)

先手 全于石 漢 李在鳳





庚二—丁二 乙五車—甲六 丁三包—乙三打象 甲五車—甲一 庚二包—庚一

壬五車—乙五 庚四包—庚二 乙五兵—乙四包 乙三包—乙三打兵 乙五車—丁六

第1回 全朝鮮學生美術展覽會

會期 自十月五日—至十四日

場所 本社大講堂에서

入選作中에서左記二級의入賞作을選拔하야各如左한正賞과副賞을授與함 (以外의入選者에게對하야는全部記念牌를進呈함)

出品種別

中等部

- 東洋畫科 (四君子畫包含함)
- 西洋畫科
- 工藝科 A、彫刻、工藝品 B、刺繡、編物

初等部

- 自由畫科
- 手工科

褒賞

(中等部)

- 特選賞 各科若干人 各〔正賞 賞牌 副賞 五十圓〕
- 優選賞 各科若干人 各〔正賞 賞狀 副賞 三十圓〕

(初等部)

- 特選賞 各科若干人 各〔正賞 賞牌 副賞 二十圓〕
- 優選賞 各科若干人 各〔正賞 賞狀 副賞 十圓〕

一、特別褒賞【本社長賞】一人百圓

右記特選作品中에서 가장優秀하다고 認하는作品에對해서는 本社長으로부터 特히 社長賞百圓을授與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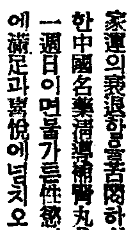
一、申請及搬入場所 一、本社庶務部 二、平壤、大邱、咸興、全州各本社支局

一、申請期日 自八月十五日至九月廿七日 一、搬入期日 自九月廿八日至九月三十日(但書記支局을通하야 搬入할時는二十九日까지)

一、出品規定 本社所定申請書를請求하야 指定欄에 各項을明細記入하야 作品題號及作者氏名、住所所屬學校學年別及 年齡等을明記하야 本社又는 各地方事務所로提出하고 作品背面에도 申請書에記入한바와가티 (詳細規定은葉書로問議하시오) 方事務所로搬入하시오

主催 朝鮮日報社

◇淸導補腎丸◇



○性器强大靈藥○

中國瑞麟土大醫生 四十年硏究大名藥 男子性器矮小、陰萎、早泄、遺精、夢精、性慾缺乏、發育不全等●性的不滿으로家庭에不和를當하야 家運의衰退하는害悶하시는분은絶對有效한中國名藥淸導補腎丸을服用하시요服藥一週日이면놀가를性慾이奏發하야〇〇時에滿足과喜悅에넘치오

★主治藥效★ (說明書呈)

◎藥價◎ 半個月二圓 一個月五圓五十錢 二個月十圓

●百發百中으로禮狀이山積●

先金注文이면送料店擔急送하고代引은送料加算함 最新製品多數輸着되엿습니다。中古品修繕한것이아니고實用價値百퍼센트最新刊型錄을進呈하오니請求하시라!

時計

滿洲國安東縣興東前街九一 振替京城二三〇三八番 滿蒙特産物商會

朝鮮日報社安岳支局 電話 二一八番

補精强壯劑

眞品海狗腎

樺太廳官營으로捕獲·同水産物檢査所에서嚴正檢査證明한

說明書請求하시면卽時보내드리겟습니다

金山府草梁町三二二ノ三 大洋貿易社 電話二一二九一 振替釜山七九二二

九月二十日(木曜)부터三日間 每日밤七時 今週부터 晝夜二回 六時半大公開

第一劇場

모루히네

其他鹽類中毒에

一朝에治療를그르치서—『모루히네慢性中毒』으로移行하야『모루히네』奪除困難에苦憫하시는분은곳福모나-루療法에依하야確實하고完全히事業을하면서모루히네類를除去할수잇고速히舊健康體에回復함으로써安心하고應用하기를切望하는바입니다。

(文獻贈呈)

製造元 大阪市東區道修町 順天堂醫化學硏究所

發賣元 田邊五兵衛商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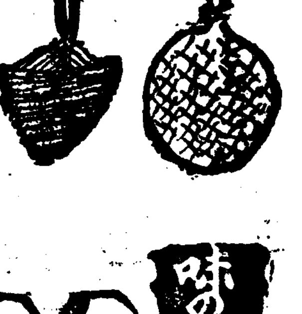
MONAL FUKU

味の素 (아지노모도)

(登錄商標)

음식은 아지노모도로 맛잇고 갑삿고 손쉽게!

부엌은 정갈하게 치어놓고 불조심!



●感嘆!!感嘆!!정말頭痛에썩조흔 ノーシン(노-신)이다●

明治(赤罐)コナミルク

榮養과經濟와를兼한國産唯一의母乳化!

牛乳、煉乳、粉乳添加物、마마-렌(榮養配合濃縮素)의併用을勸합니다

[illegible] 되거나 消化分을 [illegible] 하엿습니다。그리고價格도砂糖이드는牛乳一合에 [illegible] 되는것이고五錢의比例까지 [illegible] 되엿스므로牛乳代身에 먹어도됩니다。

東京·京橋 明治製菓株式會社

待望鰮魚群襲來 一日漁獲四萬桶

運搬不能으로버리기까지해 咸南沿岸俄然活況

【咸興】 흉어에 울든 함남도연안에 의외! 근래에 드문 정어리의 대풍획— 작일 함남도사어업과수산계에온 단천어업조합(端川漁業組合)에서의 보고를 보면 단천(端川)군 해에는 지난 칠일오후 의외로 바다를 덥흘듯한 정어리의 무리가 몰려와서 출어(出漁)하얏든 륙십여척의 어선은 최고일척에 일천삼백여통 내지 삼사백통식 평균 칠백여통(桶)의 어획(漁獲)을 보아 어떤배는 운반수업서 정어리를 도로 바다에 버리지고 오는등 근래에업는 대성어(盛漁)를 보엿다 이날 하로동안 단천(端川)에서만 잡은 것이 사만오천통(桶)으로서 이러케 만히 잡히기는 수십년래에 처음잇는 일이라고 침체상태에 잇든 어촌(漁村)은 아연 활기를 띄고잇스며 이 무리는 점점 남하(南下)하고잇다고 하므로 다른 각어장에서도 긴장하야 대기(待機)의 형세에 잇다 한다.

遮湖近海도大豊 四十餘工場始業

七日漁獲高만二萬桶

【遮湖】 정어리잡이 기간이 삼분의 이나 지나갓슴에도 불구하고 어획이 시언치못하야 극도로 한산한 동해안 일대는 사업자와 로동자를 물론하고 생활상 치명적 타격을 밧게되야 날이갈사록 일반의 공포심은 극도에 달하엿는대 브득이 공장문을 닷친사람도 불소하엿다 오직 일루의 희망은 함남도 수산시험선의 보고에 의한 차호압근해에 무수한 정어리떼가 회유(回遊)한다는 소식이엿든바 이에 일반 건착망발동선(巾着網發動船)과 자망(刺網)선들은 기장리에 대긔(待機)하고 잇다가 지난칠일 아츰에 일제히 출어하엿든바 팔일밤 여덟시경부터 만선(滿船)을 표하는 긔를 달고 들어오는 어선이 뒤를니어 차호항내바다일면을 덥흔 수백척발동선의 휘황한 전등과 모-타의 발동하는 엔진소리는 일시에 큰사변이 터진듯이 대잡답을 극하엿다 봄 여름이래 거미줄이 끌엇던 공장들은 그소화할수잇는 정도를 따라 삼사백통식 수천통을 밧지안은 공장이 업시 칠일의 수양고만 이만통가량되얏는바 관내 사십여공장은 지금 주야를 헤지안코 최대 력량을 다하야 작업하는중이며 인부가 부족하야 부녀소아도 일원이상의 고금으로서로 경쟁적으로 청하여가는중이다 단 염려되는것은 사오일내로 장마가 끈치안허서 까쓰(粕) 건조에 불편이 다대하바 빨니 날이개고 어획이 계속하야 나가기를 일반은 빌고 잇다 정어리시세는 제작일까지 매통 사원오십전내외의 고가를 보이든바 이가튼 대수확으로 말미아마 칠일은 삼원사십전 내지 칠십전까지하엿는데 그래도 작년동기에 비하면 륙칠할의 고가를 시하고잇는 호경기이다

醴泉支局員冒雨活動 災地에救濟品配給

【醴泉】 금번수해에 본사에서 식료품 의류 약품을 리재민에게 전달하라고 례천지국에 의뢰하엿슴으로 지국에서는 오일오전 열시에 퍼붓는비를 무릅쓰고 사진반과자와 군청원 안내자한사람과 태군(馱軍)두사람과 일행오인이 재해가우심한 상리면초항(上里面草項)동을 제일차로 위문하기로하엿다 이곳은 산이문허저 사상자 팔명이나 내인 산간벽촌이다 거리가 구리나되는데 도로라고는 단오정이 성한곳 업시 전부류실되여 밧으로 논으로 산으로 칠전팔기(七轉八起)로 하여서 상리면사무소까지 도착하니 때는 오후 일곱시다 면장에게 온사유를 말하니 무엇는감사의 인사를하며 지금은 목적지까지 가지못할러이니 내일 면에서 안내를할러이니 가라가라하기에 면에서 일박하고 엇잇날 오전 여덟시에 면직원과 일행륙인이 초항에 도착하니 빈터에 모여안진 재민들은 반가움에 넘치여서 눈물로 인사를 할뿐이다 구장을 차자서 재민을 모와노코 가지고간 보리를 배급하고 곳 하리면(下里面)으로 나려와서 면사무소에 의뢰하여 역시 재민에게 보리를 배급하고 돌라왓다고한다

寫眞……(上) 本報醴泉支局에서 草項洞災民에게 보리配給光景 (下) 下里에서 보리配給光景

救濟金品募集 各界에서動員

【陜川】 경남합천군(慶南陜川郡)의 이번 대홍수으로 말미아마 그 피해는 놀나운 수자를 나타내이고잇다 시급 집이업고 옷이업고 먹을것이 업서 굶주린 리재민을 위하야 합천면(陜川面)과 예수교회 부인들과 군청직원(郡廳職員) 천주교(天主敎) 본보지국 이 거두운 구제금품을 다음과갓고 모힌 금품은 군과면에 일임하야 분배케 되엿는데 가장우심한 야로면(冶爐面)과 봉산면(鳳山面) 대병면(大幷面)으로 보낼모양이다

現金	一九六圓二三
衣類	八三一點
白米	一斗二升
其他	一三點

그리고 유지리경상(李景祥)씨는 야로면(冶爐面)에가서 재민을 위로하고 현금 십원을 내엇다

四平街支局後援 水害救濟素劇

【四平街】 금번제일차 제이차로 남선(南鮮)의 폭우로 인하야 정든집과 부모형제와 처자들을 논과밧의곡식을 다떠내려버리고 먹을것이 업서서 헤매고잇다는 참담한소식을 들은 사평가(四平街)에 재류동포들은 제일차로 구제금품을 본보지국에 긔탁하얏다는것은 긔보한바어니와 금번은 제이차로 구제연극을 본보지국후원으로 출연(出演)과 소인극(素人劇)을 오는 닷새 공회당에서 한다는데 작년에도 소인극을하야 호평을 바닷스므로 금번에도 이러케 소인극을하야 그순익전부를 수해동포구제에 쓰기로되얏다한다

血淚매친義捐金! 四圓餘를寄託

淸津幼園兒들이

【淸津】 눈물어린시 밥풀수업는가련한 미담의꽃치 나날이 청진지국에 몰려드는 가운데도 특히 사립청덕학교(淸德學校)를 비롯하야 각학교의 어린이들이 남선에서 고생하고잇는 재해동포에 보내달라는 귀여운 동정의 발로가 눈에띄이든바 지난 칠월에는 다시 시내신암동(新岩洞) 청진유치원(淸津幼稚園)재원생의 어엽부고 어린이들이 갸륵한 모은돈을 씨가 정성스럽게 모아가지고 지국에 전달을 의뢰하엿는바 크게 일반을 감동시기고잇다

西平壤工場地帶 準備工作이着着進捗

簡易驛設置、送電線完了等等

【平壤】 보통강개수공사의 실시 이후에는 사백오십만평의 대공장지대를 형성하게될 대타령(大?嶺)일대는 작금괄목장한 발전을 하고잇서서 보통교이서 평남도로부근에는 훌륭한 시가지를 만들고잇거니와 평양부전에서는 장래의공업용 전력의송전을 목표로 준비공작인 송전선을 가설중이든바 공사도 종료되여 송전을 개시하게되엿다 이지대는 장래평양부에 편입될운명에 처해잇고 현재의 평남가도와 한천가도는 평양의관문(關門)으로되여 아프로는 공설시장(公設市場)의 건설도계획되는외에 평양과 조촌(?村)사이에는 정거장이업스나 대타령부근에 간이역도 만들게될것이어서 서평양의 대공업지대로서 번영을 극할것으로 상상되고잇다

翠野地方凶作 四割減을難免

【翠野】 서조선지방에는 지난륙월초순부터 일칠오일간부터 수개월을 두고 계속적으로 련속되는장마는 그칠줄을몰라 농작물에 적지안흔 손해를주엇는바 세농민들의 주요곡물인 조(粟)는 밧에서 잇는채 모다싹이나서 지난칠월 현재로 사할감을 면키어렵게되엿다는데 일반농민들은 극통안중에 잇다고한다

손터른農家四千戶 七割은生途漠然

벌서百三十餘戶他處로流離? 凄慘한高靈災民慘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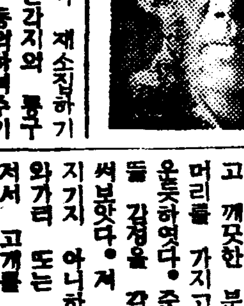
【高靈】 거듭되는수마에 집잃은 리재농가는 군조사에 의하면 그수가 실로오천 사백호라는 엄청나는수이며 그가운데 칠할이상 수확개무농가수가 사천이백호라는바 린보상조나 친척구조나 또는자력으로 근근생활유지를 할만한자를 제외한 약 삼천여호 농가는 아프로 한알의 곡식구경못하고 오-직구제의 손만고대하고 눈물과한숨으로 지내는형상인자들뿐이라고하며 벌서살수 업는것을 예치하고 따뜻한 고향을떠나 만주방면에 의지할희망을 하는자가 무려 일백삼십여명이라고 하는바 날이갈수록 류리할사람이 불어갈 불상한 실정이라고한다 …서도 … 아즉것 수리에 착수치도안코 잇다는데 동리 정지회(鄭?熙)씨는 방금 동민의 일부생활을 보조하는 입방 당국이 착수할동안 위선가공사로 「어은동농구(漏口)」에만 약삼십여간을 자진방축하여 동민전체의 구제에 대하야 감망은 실로 크다고한다

全朝鮮水上競技 來十九日로延期

【平壤】 관서체육회주최와 본사평양지국후원하에서 개최되는 제륙회 전조선 수상경기대회(第六回全朝鮮水上競技大會)는 십이일 평양부내 긔림리(箕林里)공설풀에서 개최될예정이엇스나 십구일오후한시부터 개최하기로 연긔되엿다

求禮支局主催 籠球大會延期

【求禮】 본보구례지국주최의 제일회의 남조선롱구대회(籠球大會)는 각지에서 참가신청이 답지하는중이엇스나 이번 격심한 삼남지방 폭풍우로 인한 이재민구제활동이 긴급하게되어 이와병행하기어려운 특별한사정으로 말미아마 부득이 무기연기를하기로 구례체육회와 결정을하고 금후 적당한시긔를 타서 대대적으로 준비를하야 재소집하기로하엿다는데 원근각지의 롱구단체에서는 이에 동의하여주기를 바란다고한다



◇사진은 의부사실으범을 신제괴략한 원산리통회대사(괴본)

災民을弄絡하는 密航뿌로커跋扈

渡航證不必要等甘言으로誘引 釜山署에서嚴重團束

【釜山】 요사이 부산시내에 본거를둔 일본내지밀항뿌로카들은 수해지로 도라다니면서 리재민들에게 금번수해로 말미아마 일본내지에 도항이 증명서가 업서도된다고 가지각언리설로 속이여서 부산으로 모여들게 하고잇다는데 이를 부산경찰서고등계에서는 형사대를 출동하야 방금각방면으로 수사하는 중이라한다

自己네苦難을追憶 赤誠의金五圓餘

昨年水災地荏島住民美擧

【新義州】 신의주부외 고성면신도동임도(古城面新島洞荏島)라는 곳은 사십사호의 농민이 모혀사는 압록강연안의 외로운섬인데 작년 신의주일대의 대수해로 전섬의 농작물은 전멸을 당하고 가옥은 모다 류실되엿든곳이다 이때 주민들은 멀리 떠나라는데 겨우 업커리를하고 초근목피로 런명을하여오다가 요지음은 옥수수가튼것으로 겨우 그날그날을 지나며 금번해ㅅ곡식이나 수확되기를 기다리고 잇는터인데 금번 삼남홍수의 본보호외를보고 작년 자신들의 각가지나든 경험을 생각하야 눈물을흘리며 잇는정성을다하야 한푼두푼모은 돈이 그곳청년단과 합하야 오원륙십오전이엇다한다 이적성의 눈물어린돈을가지고 대표자 장…

相生町民代表 堤防修築陳情

【全州】 수란을 치룬 전주부근 각동리에서는 제방과 하천복구공사에 진정이 매일과가티 수십건식 전북도당국에 도착되다 전주부상생정민(相生町民)(舊名魚鱉洞) 사십호 이백여명의 대표는 지난칠일 도당국을방문하고 부락, 압헤가로 마커잇는 전주천하류의 제방을 시급방축해 달라는 진정을 하엿다는데 동부락은 전긔한바와가티 약사십호가 집단한 적은마을로 금번 수재에 유실가옥이 여덟호요 전괴가·이십호로 반수의 호주가 업서저잇다 거긔에다가 제방이 결괴된논게상 반괴된가옥이 잇 … 덕기(張德基)씨는 지난칠일 본사신의주지국을 차저와서 전달을 의뢰하엿다

父親回甲記念 現金百圓喜捨

【統營】 통영정량리 김한권(金翰均)씨는 지난구월팔일 자긔부친 김치섭(金致燮)씨의회갑(回甲)을 긔렴키위하야 통영제이 보통학교설립후원회의의미로 현금 일백원을 자진기증하엿슴으로 일반사회에서는 김한균(金翰均)씨의 특지에감동하야 그의성화가부의 활동이더욱 매진하기를 바란다고한다

地方人事

▲館相鎭氏(民文普通學校長)新任人事次本報求禮支局來訪
▲芳村萬助氏(前江西金組理事)新任

愛慾의彼岸 【97】

李光洙 作 金康穆 畵

「나는 혜련의 아페 참회하리라. 땅ㅅ바다에 무릅을 꿀고 참회하리라」

준상은 이러케 생각하엿다.

「어디까지 가서요?」

하고 운전수가 뒤를 돌아보며 물엇다. 차는 고성읍을 지나서 바닷가 벌판ㅅ길로 달리고 잇섯다.

「해금강」

하고 준상은 생각에 잠겻던 고개를 들엇다. 동편 하늘에는 붉으레한 긔운이 돌앗다.

「이번 물에 길이 나빠저서 여긔서 더는 못 갑니다」

하고 운전수는 신흥구주는듯이 자를 멈추엇다.

좀더 가달라고 준상이가 보채어보앗스나 운전수는 듯지아니하엿다.

준상이 자동차ㅅ값을 치르고 해안을 향하고 것기 시작하엿다. 드믄드믄 소나무가 새벽 어스름에 졸고 잇고 이슬 매친 풀숩에서는 벌레지들이 울고잇섯다. 참으로 고요한 새벽, 깨끗한 새벽이엇다. 준상은 이 고요하고 깨끗한 분위긔ㅅ속에 더운 머리를 가지고잇는것이 부끄러운듯하엿다. 준상은 자긔의 들뜬 감정을 갈아안치라고 애를 써보앗다. 저 입사귀 하나도 움지기지 아니하는 솔은 소나무와가티 또는 이슬에 축축이저저서 고개를 숙인 풀닢과 가티 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시펏다.

그러나 준상의 생각한바와는 반대로 준상은 거진 구보로의 속도로 해안을 향하고 달렷다. 새벽의 고요함! 연보라ㅅ빗 바다에 실물ㅅ결하나도 업시 마치 다리미로 다려노흔 비단ㅅ결과 가티 다. 마당한 동해바다. 가 이러케도 고요할수가 잇나? 할만치 그만치 고요하엿다. 그리고 수평선 우에는 수평으로 갈기갈기 찟긴 붉은구룸이 잇섯다.

준상은 해만 뜨면 제가 바라던 긔회를 일허버릴것만 가타서 북으로 북으로 해금강을 향하고 올라갓다. 길ㅅ가의 여관, 그것은 분명 김장로 일행이 유숙하는 여관일것이다. 그러나 준상은 아모조록 바닷가로 치우처서 그 여관에 잇는 사람들이 설혹 잠을 깨어서 내다보더라도 눈에 띄우지 아니할만하게 먼발치로 걸어서 해금강으로 향하는 적은 고개를 넘엇다.

흰 모래와 푸른 물, 적은 바위, 그리고 주인업시 누어잇는 배 몃척, 그것밧게는 아모것도 업섯다.

준상은 실망을 느끼면서 잠간 물ㅅ가에 서잇다가 문득 발ㅅ자욱을 차즈리라는 생각이 나서 혜련을 구하엿다. 밀물이 밀엇다가 물러나가서 끔게 다저진 물ㅅ가 저른 모래에 과연 조그마한 발ㅅ자욱이 규칙적으로 북을 향하고 물ㅅ가로 올라갓다.

「아마도 혜련이다. 분명 혜련이다!」

하고 준상은 새삼스럽게 가슴이 울렁거렷다.

「내가 어째 이럴까 아처럼 내가 혜련을 사랑할까」

하고 준상은 스스로 낫츨 붉히면서 그 발ㅅ자욱을 따라서 갓다.

과연 산모퉁이를 돌아서 물ㅅ가에 솟은 바위우에 섯는 그림자! 그것은 옥색 치마를 입은 혜련이엇다.

준상은 우뚝 섯다. 혜련이 동편하늘을 바라보고 섯는 모양을 이윽히 보다가 준상은 그자리에서 몸을 감초아버리고시펏다. 혜련의 그 아모 잡념업시, 생각이 잇다면 천국생각만 갓득 차서, 고요하게 잇는 마음을 건드리기가 건드리고십지아니하엿다.

준상은 잠깐 바위 뒤르로 몸을 비켯다.

「아아 아름다운 모양, 깨끗한 모양!」

하고 준상은 넉빠진 사람 모양으로 혜련을 바라보고 잇섯다. 그 동안에 바다ㅅ비치 무슨빗으로 변하엿는지, 하늘에구름이 어떠한지, 준상은 몰랏다. 준상은 시간을 잇고 저를 이젓다. 황홀하엿다. 아모 생각도 업섯다. 언제까지나 움지기지아니하는 혜련의 모양은 마치 대지우에 도다난것 가탓다.

效力第一!高級美容料

三好美容液

죽은깨 여드름

女性에게 一大福音!!

女性에게 容貌의 醜가 一生을 通하야 幸과 不幸의 分岐點이 된다는 것은 洋의 東西와 時의 古今을 莫論하고 此世에 生을 태여난 女子에게는 한 宿命的 鐵則이외다 그럼으로 美容은 女子에게 卽 生命이오 全的財產이라는 것을 否認할 者 世上에 其누구겟습니까? 이에 弊社는 感한바 有하야 多年間 苦心研究한 結果 女性의 一生에 運命을 左右할 救世主가 發見되엿으니 이 卽

新製品 三好 美容液

滿天下女性들은 이三好美容液을 使用하야 容貌의 根本的改造를 斷行하시오 그리하야 압으로 無限한 幸福을 길이 누리시오

主治効能 죽은깨、검이、여드름 其他一切의잡티

用法 每日二回式朝夕으로 使用하시되 반드시 洗面을 淸潔히 한後 美容液을 一二次흔들어서 바르시고 其우에 三好クリーム를 겹처바르시면 效果百パーセント!! 但 興奮者는 九十度、重症者는 百度를 使用하시오

定價 二、五〇 販賣店 全國各地 百貨店 藥店 化粧品店

製造元 京城 三好化粧品株式會社 電光 一七二七番 振京 一五九五八番

京城秋季競馬會 開催月日 九月十二日 九月十三日 九月十九日 九月二十日 九月二十二日 九月二十三日 九月二十六日 九月二十七日 於東大門外競馬場 朝鮮競馬俱樂部

染料原料 信用 卸商 本位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檢查 染料取扱店 大壯洋行 京城府南大門通四丁目(市場入口側) 振替京城一二〇六八番

독일제원조 조선세창가표 바늘은 물끼잇는손으로(강울) 문대도 조금도 변치안는것이특색입니다 근래각지방소매상과 야시에 서왕왕위조품을 취급하는일이잇사오니 사실때에는 빈트시 세창의 것을 주시압

純正商標見本 仁川府支那町 同福公 直輸入販賣商 京城南大門通四丁目一四 京城總販賣店 李泰漢商店 電話本局二五一三番

돈벌기大王 リード式穀物膨脹機 新型各種(カタログ進呈) 大阪市東淀川區本庄西通一 兒島製作所 (電話北五二九八番) 製菓法傳授 八升米가 八升五合의 …

朝報案內 賣地 市內蓮建町特等地 九十坪 希望者談面 電話本局一、二三九 社員採用 中學程度年齡二十五歲以上男子五名 特別待遇生活安定、經驗有無不關 京城黃金町二丁目 愛國生命保險株式會社京城出張所 指導者 崔宇植

不老長壽 強精回春 更少年藥 百補丸 平和堂 一劑十圓

文具卸商 株式會社 彰文堂 京城仁寺町 電光七三八・振替京城五〇九五

登錄商標 거북선 고무신은 거북선 京城東大門外 서울고무工社 電光二一九

이보다 더조흔 머리기름은 업다 ラジン香油

"米自管法發動"의 實現境遇再檢味 ②

農林當局은 鮮米 及 臺灣으로부터의 移入高를 各히 九百萬石 及 五〇〇萬石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이것이 過多한 것은 昭和八、九、十의 三個年의 朝鮮外地로부터의 移入高를 보면 明瞭하다 (單位千石)

	朝鮮으로부터	臺灣으로부터
昭和八年	七、三二	一、三六
同九年	八、五二	一、三五
同十年	八、四三	一、二一
平均	八、三六	一、六九

即 前三個年平均으로는 朝鮮及臺灣으로부터의 移入高는 各히 八百三十萬石 及 四百六十萬石程度이다 그리고 前記의 水稻作況에 基한 今年의 收穫推算 六千五百十萬石으로 보고 公平한 需給推算을 하여보면 다음과가티된다 (單位千石)

▲供給
一、當年收穫豫想高 六五、〇五〇
一、朝鮮으로부터移入 八、三三〇
一、臺灣으로부터移入 四、六〇〇
一、前年度持越高 九、〇〇〇
計 八七、二四〇

▲需要
一、消費見込高 七〇、二〇〇
一、次年度持越高 九、〇〇〇
計 七九、二〇〇

▲過剩米 八、〇四〇

右와如히 過剩米는 百四十萬石程度에 及지는 計算도 成立된다는것이다 오히려 이 需給推算의 數는 一般的推測이다 그러면 農林當局은 何故로 過大한 推算을 行하는가하는 疑問이생기는바 그는 過剩米가 多量에 依하야 米穀自治管理法의 發動을 容易케 하고저하는 意圖가 아닌가 하고 少數으로 보인다 ×

如何間 八月十五日現在의 水稻作況에 基하면 多少에不拘하고 過剩米가 生할것은 거의 明白하게되어다 [illegible]

農産風水被害 慶南만 三千萬圓

水稻三割減、陸稻八割減、棉五割減 田畓의流失、埋沒廣大

今番風水害가 甚한 慶南道의 農産關係被害調査次로 現地를 踏査하고온 總督府農産課員의 調査에 依하면 新地에 對하야 五百六十五萬餘圓 農産物、家畜山林關係를 合하면 合計 實로 二千九百八十萬五千八百八十二圓이라는 膨大한것으로 三千萬圓突破를 바라보고 있다는 놀랄만한 數字에 達하엿다 作物其他種別의 被害는 左와 如하거니와 그中特記할것은 畓의 流失千六百四十二町步 埋沒三千四百二十九町步 金額 四百五十四萬餘圓 田流失八百七十一町步 埋沒 二千二百六十五町步 金額一千百十一萬餘圓 被害金額計 五百六十五萬四千餘圓 浸水畓 三萬一千八百八十五町步 計 田一萬八千八百七十一町步等이다 또水稻는 平年作보다 約三割減 陸稻는 平年보다 八割減 豆類는 大豆가 約五割減收 其他豆類四割五分減收 棉은 八月十五日豫想보다 約五割減이다

▲水稻 被害面積 一二三、六六九町步 收穫皆無 一六、四六一町步 三分作以下 五、四〇一町步 被害額 一六、五一五、八一五圓
▲陸稻 被害面積 四、七五七町步 收穫皆無 三、三八二町步 三分作以下 二九八町步 被害額 一、〇五九、七二一圓
▲豆類 被害面積 二七、二一八町 收穫皆無 六、七四三町 三分作以下 三、〇二九町步 被害額 一、七一三、九六〇圓
▲雜穀 被害面積 三、四四九町步 收穫皆無 一、三〇一町步 三分作以下 四五八町步 被害額 二六四、八一一圓
▲蔬菜 被害面積 六、一二二町步 收穫皆無 二、一七六町步 三分作以下 八四九町步 被害額 一、一六九、八六三圓
▲果樹 被害面積 一、一九二町步 收穫皆無 六九町步 三分作以下 四五一町步 被害額 七四四、六七九圓
▲其他 被害面積 七四八町步 收穫皆無 七五町步 三分作以下 九一町步 被害額 一〇四、五一五圓
▲棉 被害面積 二五、三四六町步 收穫無 二、三六九町步 三分作以下 五、九〇三町步 被害額 二、二七八、九二七圓
▲蠶 播立에比하야 四割減 被害額 一六五、六一〇圓
▲畜産 二、九四〇圓
▲耕地 五、六五四、七二六圓
合計 二九、八〇五、八八二圓

農作의 總被害額 七千萬圓突破?

今次 風水害에 依한 農業被害狀況은 農林局에서 特派調查班을 組織하야 調查中이든바 十日午前까지에 全北、全南、慶南、慶北의 被害金額가 明白히되엿다 이에依하면 (單位圓)

全北	三、四六七、一八三
全南	四、八三六、七九四
慶北	一三、〇八三、九六三
慶南	二九、八〇五、一八二
總計	五一、一九三、一二二

로 實로 五千萬圓을 突破하엿슴이 明白히되엿고 이外에 特히 被害激甚한 江原道가 아직 判明되지안엇고 全南、慶南北은 八月下旬의 降雨로 更히 被害를 擴大하얏슴으로 此等을 合算하면 農業直接被害額만 今次水害는 實로 七千萬圓을 突破하는 超記錄的大被害가 될것이라한다

八月分 鹽販賣高

八月分의 鹽販賣高(各所別)는 二十七萬二千一百六十七圓으로 各所別販賣高를보면 新義州五萬九千四百三十二圓 鎭南浦四萬七千五百五圓 仁川五萬三千六百九十六圓 木浦九千二百九十四圓 群山一萬三千四百九十四圓 元山一萬九千六百十八圓 淸津三萬二千六百六十一圓 四百六十七圓이다

葉煙草 風水被害

賠償金百萬圓減

第一次、第二次의 風水害로 葉煙草의 被害는 約九十二萬四千貫이오 今年의 收納豫定額六百卅六萬七千貫의 一割四分五厘에 相當하다 이結果 耕作者에對한 賠償金約百萬圓이 減少할터인데 風水害에依한 損害와 二重의 被害를 本年農家는 當할터이니 實로 큰打擊이다

道別로보면 全北四割一分二厘、江原道三割一分四厘、忠南一割三分四厘 其他一割程度로 가장被害가 甚大한 地方은 全州管內淳昌、高敞地方으로 이곳은 四割一分과 四割四割이다 (植居專賣局長談)

上旬對外貿易

【東京電話同盟】 大藏省發表 九月上旬對外貿易概算額은 如左하다 (單位千圓)

輸出 八五、六二七
輸入 六五、八一七
計 一五一、四四四
出超 一九、八一〇

鹽田擴田 二次工事

工費는 二百二十萬圓 明年十二月竣功

南市、貴城、蘇萊의 第一次計劃은 今年까지에 이미 竣工되엇는데 이面積은 千百卅九町步로 五個年繼續으로 工費二百十萬圓을 要하얏다 第二次計劃은 工費二百卅萬圓으로 其中蘇萊의 百九十三町步와 貴城五百卅二町步로 이는 이미 工事에 着手하얏슴으로 明年十二月까지에는 竣功될豫定이다 남은것은 貴城百八十町步와 德洞百六十町步로 目下測量中임으로 測量되는대로 着工할터로 이로써 全部鹽田擴張工事는 竣成된다 完成後五、六年을 經過하면 熟田으로되어 熟成後 每年二億二千萬斤程度를 生産할수 있을것임으로 現在의 需要 年額五億千萬斤도 外鹽을 要치안코 自給自足의 區域에 達할것이다 (植居專賣局長談)

米價大慘落

大阪地場 賣聯盟結成 朝鮮의凶作은無關視

再昨年과 昨年兩年에 凶作米價高로 致命的損失을 當한 大阪米穀取引所地場은 今年日本內地豐의 作을 豫想하고 朝鮮凶作에不拘코 賣聯盟을 組織하야 十二月限新甫부터 賣方針을 取하야 數日來大暴落을 거듭하고잇는데 落潮는 昨前日에 比하야 一擧四十錢의 暴落이엇는바 大阪地場은 朝鮮側의 大阪서의 買玉二十五萬石의 總投出을 目標로하고잇다

開城蔘圃採掘

十六日부터開始

開城蔘圃의 今年度水蔘採掘은 十四日부터 開始할터이엇스나 天候不良으로 十六日부터 着手키로되엇는데 採掘面積은 三十七萬九千坪으로 約七十六萬斤에 達할터이며 植居專賣局長은 出入記者團一同과 十九日 觀察키로되어다

土木建築協會

社團法人認可

京城土木建築協會의 社團法人創立準備에 認可가 잇섯슴으로 直時着手하얏다

產業調査準備會

朝鮮産業經濟調査會의 準備委員會는 十七日午後一時부터 總督府에서 開催하고 講師와 委員을 正式으로 決定할터인데 會期는 [illegible]

簡保運用資金

平均一分利下

簡保積立金運用委員會는 十日午前九時부터 總督府第二會議室에서 幹事會를 開催하고 二十一日 開催될 同委員會에 附議할 議案

一、昭和十一年度 追加運用에 關한件
一、同十二年度 運用에 關한件을 審議하고 右運用資金의 貸付限度、利率、貸付事業範圍等을 決定하고 同十一時 散會하엿는데 貸付利率은 低金利政策에 順應하야 明年度부터 平均一分程度의 利下를 하기로 되엇다 明年度貸付金은 大體 八百萬圓程度이라한다

經洛寸鐵

○標準小賣人座談會(專賣局)는 十日午後六時부터 同局內에서 標準小賣經營指導座談會를 開催한다고

取引停止 (九月七日)

府內茶洞町六番地元興家具商店 仁派

○朝銀、殖銀合併說에 對하야 朝鮮財界서는 一笑한다고

○實情으로 不可能하다는 모양이나 合倂도 一理가 업는것이 아닌것이 問題

○鹽田擴張工事가 全部完成되면 約十年後에는 現在需要 年五億斤을 自給自足케 되리라고 장창한일

○慶南의 風水로因한 農産關係被害만 勿驚 三千萬圓이라고 아이고 맙시사

商況 (十日)

株式 鍾新暴騰 活況

前場一息 昨後場急落의 뒤를이어 今前場은 一息으로 底迷이엇스나 即昨後引에 比하야 東新二十錢高인 百二十三圓四十錢、日産不變인 八十圓六十錢 大新十錢低인 六十七圓丁、朝新十錢高인 三十一圓九十錢에 各大引되고 日産新二十八圓二十錢 拓新 二十六圓四、五十錢이 잇섯다

▲朝新 三九(寄)三八 三〇 三〇 三〇 三〇(引)
▲東新 三〇(寄)三〇 三〇 三〇 三〇(引)

後場鍾新高

後場은 拂込材料가잇는 鍾新이 百七十一圓五十錢에까지 續騰되엇는 其他諸株는 依然鈍重不勢이엇고 採合氣大引

急落後의 一息

取引所制度調査委員會開催를 앞두고 그 改善案이 어떠할지 不安이 再燃하야 袖手傍觀이던차에 昨日은 東京서 齋藤의 二萬株賣로 東新이 崩하고 不良取引員整理를 秩내고 中國出兵說等까지 나와서 昨後場에는 百二十二圓四十錢으로 高價에서 一氣五圓徐을 갈엇 市勢도 다시 逆轉을 憂慮케하야 大概는 못처럼 強化하얏던 側이 모다 投出케되고 또 底入未了論이 優勢케되엇으나 今前場은 百二十二三圓臺에서 低迷이엇는바 取引所改善案이 當所株上場禁止가른 根本問題에 觸치안는限 不良取引員整理가튼것은 一時的衝動에 止할것이오 이것으로 因한 低價는 大局的으로 買好期일이다

二、二六事件가튼 未曾有의 大事件으로도 東京東新 百十九圓 三十錢에 떠러지지안엇스니 그以下의 低價를 期키는 一考를 要할것갓다

惡目은買場?

雜株界는 每日高騰하는것이 接踵하야 二流株로부터 三流 四流 五流株는 普遍化가는터이니

1、米國의 好景氣
2、赤字公債增發로 金利續低下
3、平價切下必至情勢
4、軍備大擴算으로 인프레景氣

等에 依하야 前途活躍이 豫想되고 步一步大市勢의 序曲에 向하야 結局은 東新의 最後的買場이잇고야 말것으로 取引所制度改善案이 別것업는것이 判明되면 이것이 動機로 年末에 亘한 大活躍이 必至이겟스나 目前的으로는 東新에 完全히 人氣가 向치안코 昨日과 가리 賣叩됨으로 秋市勢의 時期尙早의 觀이 不無하얏는데 大局的으로는 惡目은 買而已로 볼이 賢明하리라할이잇다

強氣의大勢觀

西班牙內亂은 政府軍이 이기던지 叛亂軍이 이기던지間에 歐洲政局을 緊張케하야 結局戰爭에 至할것이아닐가? 北中形勢는 相當히 逼迫되는 모양이나 이以上惡化는아닐것이오 國內的으로도 電力國營等이 아즉 時期尙早이오 增稅도 二億程度이면 現在市勢가 三億乃至四億을 織込한터임으로 이것이 決定되면도 리허 市勢는 奔騰될것이다 다만取組關係 仕手關係로보아 雜株도 되고 다만 鐵만 國際協定의 延長問題로 低迷가 繼續되는바 最近勢가 顯著한것은 貴金屬中 뿌라지나의 奔騰이다 如斯히 鐵物貴金屬共히 好勢를 示모잇는바 需給實勢를 보아 도前途一段好調가 期待된다

期米 底不知의 慘崩

前場瓦落

昨後場阪地 三千圓九十七錢止와 共히 二十八圓九十一錢에 場을 止한 當市場은 今朝에 入하야 阪地初付 三十圓九十六錢인 一丁低을 據하고 二十八圓八十九錢인 二丁低로 場을 始한後 阪地連續瓦落으로 七十五錢의 最低로 場을 止하면다 앞으로 五節六十三錢으로 七十一錢까지 小戻하엿다가 結局六十一錢에 場을 止하엿다

後場崩落

後場은 二十八圓六十三錢에 二丁高로 始場後二節 六十八錢에 下溢이엇스나 大阪低로 投物이 山積하야 四五節五十錢에 崩하고 五十一錢에 止場하다

當地의當限戰

賣方俄然優勢

當地의 當限은 丸ウ取引店等本營으로한 某有力側의 買物이 蟠居하야 先限의 瓦落임에도 不拘하고 當限은 當限의 特殊한 事情이 잇다는 條件일에 마치 張弓의 勢를 가지고 잇섯는데 不日에 賣方이 相當히 結局의 當限도 下落하고 잇다는 氣配로 한 [illegible]

六感

(株)……取引所株는 어디까지 떠러질지 不明이든 모양▲東新은 못처럼 百二十七圓臺까지 올랏섯는데 不良取引員整理說、出兵說等으로 百二十二圓臺로 또急落되고보니 기막히는일▲二、二六事件으로도 百十九圓三十錢밖게 떠러지지 안엇고 當所株場禁止 떼마로도 百二十圓三十錢밖게 떠러지지안엇스니 무엇으로 그以下를 바라겟느냐는 強氣觀이 可하나▲秋市勢에 直面하야 興味百%인 판국 깍대잘못하다가는 정작 큰市勢를 놋치게되는판

(米)……朝鮮의 天候로보아서는 到底히 贊成할 餘地가 업스나 그러나 日本內地가 好天으로 二百二十日도 無難經過될모양▲그래서 東阪其他市場이 一齊暴落을 告함에 딸아 當地도 그餘響을 바더 小口買方에 損退物이 續出하는 光景▲무슨 特殊한 條件이 잇는 드시 잔뜩 버티고잇든 當限도 畢竟은 反落되고야마는군▲客月에 一躍低落을 當하엿든 金太側이 今月은 絶對當限의 受方을 抗하려고 方今群山木浦等 通하야 渡米를 蒐集中이라고 今後果如何?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illegible]	[illegible]
中限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今日財界 (十日)

◆米 仁川期米 大阪期米 同正米 (期、先限) [illegible]
◆市中金融 [illegible]
◆株 朝新 東新 日産 [illegible]
◆綿 大阪綿糸 大阪人絹 大阪砂糖 大阪三品 [illegible]

實物前場取引

◆大同鑛業 [illegible] ◆北樺太石油新 [illegible] ◆朝鮮無煙 [illegible] ◆帝國火藥 [illegible] ◆日本曹達新 [illegible] (合計取數)

東京國債市況

【東京電話同盟】 米貨債는 高調나 六分半一圓五分半八十錢이 續騰하야 大幅反落을 하얏고 五錢乃至十錢引 歸는 實物落으로 [illegible]

二百二十日과 各地의天候豫想

明十一日은 三大厄日의 最終日인 二百二十日되는날이다 此厄日의 天候가 마치 何如할지 올리서 各地測候所에서는 警戒하고 잇는바인데 今朝仁川觀測所의 發表에 依하면 左記와 如하다

昨日 黃海南北으로 逸走하는 不連續線은 南으로移動되어 今朝는 朝鮮海峽을 東西로달아나기때문에 昨午後부터 今朝에 亘하기까지 中部西側은 五六十미리 特히 木浦는 百四미리의 豪雨가 襲來하엿스며 今朝 南朝鮮은 盛雨小雨、中部以北은 曇天、新義州는 快晴이다 千島方面의 高氣壓은 本邦西部에 亘하야 勢力을 伸張하고 잇슴으로 日本內地의 天候는 晴하는 것이며 中部以上은 漸次晴天이 되리라고한다

各地正米

京城暴落

期米急落과 各地一齊軟化로 朝鮮米는 一氣呵에 四十錢暴落을 出演하얏다 三、〇 四等 三〇、五〇

仁川慘落

日本內地의 豐作豫想과 朝鮮內作況悲觀人氣로 前場은 氣配顯著히 軟調인 採先所 今朝는 期米의 暴落을 보고 市勢는 持의 買拔하는 態度가 잇서서 一擧四十錢慘落을 告하얏다 三等三〇、八〇 四等三〇、五〇 一等白米一三、〇〇

釜山閑散

定期低落을 受影하야 買方은 全혀 影姿를 潛하고 前日十一입이라는 叢被沈滯를 示하얏다 所持의 賣務賭入氣은 依然 四等三一、二〇 一等白米一三、七四

大邱軟化

市場은 依然品薄狀態가 繼續되나 淸算의 急落으로 氣迷深하고 市勢가 十錢下走이엇다 四三等三〇、八〇 四等三〇、一等白米一三、二〇

群山引緩

續軟하야 場面에 은 變化가 업고 不實의 休業同樣의 商狀으로 定期의 漸落을 移하야 氣配十錢引緩이엇다 三等三一、三五 四等三一、二〇 一等白米一四、〇〇

木浦續軟

厄日無難豫想과 定期의 急落으로 實需가 잇스나 當用必需品의 小口에 買取되는 外에 買氣가 업고 市勢十錢續落이엇다 四三等三一、六〇 四等三一、三〇 一等白米一三、〇〇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 今朝新甫는 中央合하야 二文新은 今朝郊米의 臺灣米와 萬石程度買進하앗스나 그것은 먼저 買埋하야 利食이라하야 下值는 賣落되엇다 北鮮方面의 新米가 再次崩하야 九月廿日搬入의 豐作 一段四斗廿二圓行으로 멋으나 昨夕 九州十九錢으로 崩하고 產地와 地場에 二千石의 商談이 成立되엇다 今朝는 更히 八十錢에 引落하고 一般人氣는 更히 軟化하야 新規賣와 投物이 만하여 三限이 모다 低落步調이엇는바 主要賣買는 賣方 砂段、東京側 買方 地場 朝鮮側

期米 (十日)

◆朝取期米 (當限 中限 先限)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釜山期米 [illegible]
◆大邱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合計高 [illegible]

株式 (十日)

◆朝取短期 ◆東京短期 ◆東京短期取組 ◆大阪短期 ◆大阪短期取組 ◆大阪長期 ◆東京現株 ◆朝取短期賣買高 ◆限定代引日步 [illegible]

金融 (十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勢 ◆日本銀行勢 ◆京城手形交換高 ◆金 ◆京城府中金融情勢 ◆東京市中金融 ◆金買入價 ◆爲替 [illegible]

商品 (十日)

◆京城正米 ◆仁川正米 大豆 ◆京城雜穀 ◆京城綿糸布市勢 ◆京城綿布 ◆綿糸柏冷價 ◆日本変物市勢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大阪人絹現物 ◆大阪生糸 ◆大阪砂糖 ◆大阪綿糸 ◆大阪綿花 ◆各地人絹 ◆各地正租市勢 (單位錢) ◆大阪正米 ◆大阪市中正米 ◆大阪期米取組 ◆外卯期 [illegible]

東益商店 米 株 仁川 京城 金益證券部

米 期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金 銀 金土金 石 賣買分析 金銀賣買會社 京城府南大門通一ノ九五 電話本局一三八〇番 振替京城一三四八〇番

朝鮮紙物都賣 北 全北企業株式會社 兼委託販賣 支店 全州府本町一丁目 電一五四番 振替京城一二八〇番